


(재)달서문화재단 소식지

vol. **09**

문화만개
DALSEO



ISSN 2384-373X



아름다운 시절
아름다운 당신

La vie en Rose

누구에게나
햇빛 찬연한
날들이 있다

누구에게나
어둠 가득한
날들도 있다

인생의 여행길
긴긴 여정에서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어쩌면 그건
똑같은 이름

눈부신 오늘이여
눈부신 당신이여

우리네 인생은
장밋빛 인생!



달서구 지역축제 <2019 장미꽃 필(Feel) 무렵> 5.8~5.11 이곡장미공원

여는 글

Editor's Letter

올해도 장미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내리쬐는 피약볕에 한줄기 바람이 반가운 날들입니다.

올해로 제8회째를 맞이한 <2019 장미꽃 필(Feel)무렵> 축제의 주제는 '라비앙로즈(La Vie En Rose)',
우리말로는 '장미빛 인생'이었습니다. 수천수만의 장미꽃 종류만큼이나
사람들 각자의 장미빛 인생은 다른 빛깔일 테지만,
고통과 시련의 과정을 지나 맞이하는 찬란한 날들은
그만큼 더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비앙로즈' 하면 또 프랑스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Edith Piaf)가 부른 노래와
그녀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로도 유명한데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지만 역경을 예술로 승화시켜
아름다운 노래를 남기고, 그 노래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면
우리네 인생 모든 순간이 피고 지고 다시 피기를 거듭하는,
곧 장미빛 인생이 아닌가요 싶습니다.

참, 이번 제9호 '문화만개' 느낌이 어떠신가요? 구성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문화만개'라는 이름처럼 '문화의 꽃이 활짝 피는'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데 초점을 좀 더 맞추고,
'달서구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사람과 문화 이야기' 내용을 더했습니다.

"남에게 장미꽃을 주는 사람의 손에는 언제나 향기가 남아 있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이 말은 "행복은 받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주는 데서 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행복한 삶, 소소한 행복을 함께 느끼며 하루하루 아름답게, 멋있게 살아가는 일상,
그 속에서 환히 웃는 얼굴.

'문화만개'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그런 모습을 담겠습니다.

CONTENTS



(재)달서문화재단 소식지인 '문화만개'는 문화예술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며, 그 문화의 향기로 '어질고 선한 세상'을 이뤄가는 따뜻한 움직임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만개'의 자음을 도형적 요소로 구성하고, 'ㅎ'을 문화의 꽃이 활짝 피는 확장된 이미지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문화를 전하는 '문화만개' 매거진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통해 독자들에게 한결음 더 친숙하게 다가가려 합니다.

발행인 : 이태훈 (재)달서문화재단 이사장
발행처 : (재)달서문화재단
대구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 (장기동)
웃는얼굴아트센터 별관2F
발행일 : 2019년 7월 15일
기획 : (재)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
편집위원 : 이경애, 정정남, 김상아, 허정무, 정지연, 박영빈, 김민경
디자인/제작 : 동아에드(주)

2019년 VOL.9 비매품
ISSN 2384-373X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은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만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재)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로 신청바랍니다.

Intro

- 02 Prologue
2019 장미꽃 필(Feel)무렵
라비앙로즈(La Vie En Rose)_장밋빛 인생
- 04 Editor's Letter
올해도 장미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Art & Culture

- 기획특집 _ 얼굴, 그리고...
- 10 자화상과 초상화로 본 시대의 '큰 얼굴'
미술학 박사 김남희
- 18 얼굴
원예인문학자 김해숙
- 26 청동거울
수필가 이미영

Interview

- 34 내가 부르는 또 다른 나
오페라 <리골레토> 바리톤 제상철
- 38 청춘의 그림들
<인형의 꿈> 서양화가 공병훈, 한승훈

Life & Culture

- 46 문화기행
상화로, 그 안에 담긴 이야기
- 52 일상@예술
<예술아카데미> 순간의 기록,
드로잉으로 떠나는 여행. 리모 작가를 만나다
- 58 Live On
<대구색소폰콰이어> 색소폰에 빠져들다
<애플재즈오케스트라> 재즈, 그 낭만 속으로
- 66 Highlight
<공연> 블라디보스토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프리뷰> 이이남 읽기展
<이슈> 달서가족문화센터 개관 1주년
<인프라>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 74 2019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 거리버스킹

기획특집
얼굴, 그리고...
‘자화상과 초상화로 본 시대의 ‘큰 얼굴’
미술학 박사 김남희

기획특집
얼굴, 그리고...
‘얼굴’
원예인문학자 김해숙

기획특집
얼굴, 그리고...
‘청동거울’
수필가 이미영

Interview
‘내가 부르는 또 다른 나’
오페라 <리골레토> 바리톤 제상철

Interview
‘청춘의 그림들’
<인형의 꿈> 서양화가 공병훈, 한승훈

Art & Culture

문화와 예술은 다양한 빛깔과 향기가 있다. (재)달서문화재단은 매 시즌 다채로운 기획 전시와 공연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폭넓은 문화·예술의 세계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특히 이번 기획특집 코너에서는 ‘영혼의 통로’이자 ‘소통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얼굴’에 키워드를 맞추고 그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 보았다. 또, <대구의 얼굴> <리골레토> <인형의 꿈> 등의 전시, 공연을 선보인 예술가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인생과 철학, 작품 이야기 등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자 했다.

<대구의 얼굴> 중에서
-이영철 작가의 ‘Drawing in Life’
2019. 5. 23(목)~6. 14(금) / 10:00~19:00
(재)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갤러리

자화상과 초상화로 본 시대의 '큰 얼굴'

A portrait and a master

글 · 사진 미술학 박사 김남희

이른 아침, 신문을 펼쳤다. 빛바랜 사진 두 장에 눈이 갔다. 단정한 한복 차림에 엷된 얼굴의 소녀다. 100년 만에 공개된 13세 유관순(1902~1920)의 모습이 풋풋하다. 5월 22일자로 언론에 소개된 유관순 열사의 미공개 사진은 이화학당 보통과에 다니던 1915~1916년(13세 추정)의 것과 고등과에 다니던 1918년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사진은 시공을 초월하여 강한 '아우라'를 풍긴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유명인의 사진은 생소하지만 친근감을 준다. 초상사진

의 매력은 초면에도 익숙한 소통의 감정을 선사한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차고 넘치는 요즘과 달리, 사진기가 없던 시절에 찍은 인물 사진은 역사의 값진 기록물이 아닐 수 없다. 암울한 시대에 불꽃처럼 타올랐던 유관순의 사진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역사를 수놓았던 뜨거운 자화상과 초상화가 떠올랐다. 이들 자화상과 초상화는 사진기가 없던 시절의 '사진(寫眞)'이다.



윤두서 (자화상)
종이에 담채, 38.5×20.5cm



윤두서 (나무 캐는 여인)
비단에 수묵담채, 30.2×25cm

윤두서, 자신을 직시한 화가의 자화상

먼저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 1668~1715)의 <자화상>이다. 이 강렬한 그림은 좌우대칭의 얼굴을 정면에서 그린 조선시대 최초의 자화상으로, 세계적으로도 작품성을 인정받는 걸작이다. 얼굴은 한 사람의 내력을 담고 있다. 사진술이 없을 때 초상화나 자화상을 제작하여 남겼다. 조선시대에 화가가 자신의 얼굴을 그린 것은 윤두서가 처음이다. 그는 사실화를 개척한 선구자이며, 실학으로 시대의 정신을 밝힌 학자였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처절한 그의 삶을 대변한다. <자화상>은 그 정신의 고갱이다. 윤두서는 명문가이며 대부호인 해남(海南) 윤씨의 종손으로, 증조부가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대가인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 1578~1671)이다.

또 그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외증조로, 당대의 실학(實學)사상을 추구한 진취적인 학자였다. 윤두서는 26세에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서인이 득세하는 시기에 남인인 그의 정치 입문은 가시밭길이었다. 출중한 가문에 풍부한 학식을 겸비한 그는 당쟁이 치열한 시기 기량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고향인 해남에서 48세에 생을 마감한다. 시서화 삼절을 두루 갖춘 사대부 화가로서 새로운 화풍인 사실화를 개척하여, 사대부가 아닌 서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획기적인 그림을 그렸다. 윤두서는 중국에서 출판한 목판본 《당시화보(唐詩畫譜)》와 《고씨화보(顧氏畫譜)》 등 일종의 '그림책'을 보고 그림을 연마했다. 남종문인화풍의 산수화와 현실적인 정물, 사실적인 풍속화 등 서양화풍의 기법을 사용한 새로운 회화 장르를 펼쳤다.

그가 남긴 《해남윤씨가전고화첩》에는 산수, 인물, 풍속, 영모, 화조 등 다양한 그림이 들어 있다. 특히 〈나물 캐기〉, 〈목기 깎기〉, 〈짚신 삼기〉 등 서민을 주제로 한 사실화는 후대에 등장한 풍속화의 선구적인 작업으로 꼽힌다.

45세 때 그린 〈자화상〉은 윤두서의 올곧은 인품이 어떠한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강인한 눈동자가 사람의 마음을 긴장시킨다. 화면 가득한 얼굴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기운이 감상자를 압도한다. 부드럽게 올라간 눈썹 아래 정면을 응시한 눈동자는 세상을 뚫어저러 쳐다본다. 두툼한 입술에서 학자다운 결기가 느껴지고, 결벽하리만치 정돈된 수염에서 정갈한 선비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원래 그림에는 어깨와 옷 주름이 있었는데, 후대에 없어지고 얼굴만 덩그러니 남았다고 한다. 그래서 더 독특한 작품이 되었다.

붉은 기운이 감도는 얼굴에는 기상이 넘친다. 바탕색을 은은하게 처리하여 이목구비에 눈길이 간다. 단순한 색채에 농담을 구사한 선묘가 사실적이다. 살아있는 윤두서를 보는 것만 같다. 초상화로는 드물게 국보로 지정되어 조선시대의 인물상을 대표한다. 윤두서는 모든 것을 갖춘 지식인이었으나 정치의 뜻은 접어야 했다. 하지만 사실화를 시도한 화가로서 한 시대를 든든하게 밝혀주었다.



이한철 〈최북초상〉
종이에 담채, 65.5×41.5cm



최북 〈풍설아귀도〉
종이에 채색, 66.3×42.9cm

**최북,
‘칠칠’맞은 화가의
애꾸눈 초상화**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 나라가 안정을 찾고 문화를 감상하는 사회가 된다. 사대부화가 못지않게 직업화가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시대가 되었다. 중인으로 직업화가인 호생관(毫生館) 최북(崔北, 1712~1786년경)은 격정의 인생을 살다간 화가였다. 비록 자화상은 없지만 다행히 〈초상화〉가 남아 있다. 이 희귀한 초상화에는 최북의 드라마틱한 인생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호생관은 ‘붓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란 뜻이다. 그는 자신의 이름인 ‘북北’자를 풀어서 ‘칠칠七七’이라고 낮추어 불렀다. 시인 석북(石北) 신광수(申光洙, 1712~1775)는 최북의 「〈설강도〉에 부치는 시」에서

“장안에서 그림 파는 최북이를 보소
살림살이란 오막살이에 네 벽은 텅 비었는데
문을 닫고 종일토록 산수화를 그려대네.
유리안경 집어 쓰고 나무 필통 끌어내어
아침에 한 폭 팔아 아침밥을 얻어먹고
저녁에 한 폭 팔아 저녁밥을 얻어먹고.”

라고 썼다. 마치 최북의 약전(略傳) 같다.

남공철(南公徹, 1760~1840)의 『최칠칠전(崔七七傳)』에는 “칠칠이는 하루에 5, 6되의 술을 마셨다.”라고 했는데, 술을 좋아한 최북이 술한 기행을 남겼다. 그는 성격이

괴팍하기는 했지만 직업화가로서의 결의는 곧았다.

최북은 애꾸눈이었다. 한쪽 눈에 안경알을 붙이고 붓을 들었다. 왜 그랬는지는 우봉(又峰) 조희룡(趙熙龍, 1797~1859)이 쓴 『호산외사(壺山外史)』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선비가 그림을 부탁했는데, 최북은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림은 그리지 않고 시간만 끌었다. 다시 찾아온 선비가 다짜고짜 그림을 내놓으라고 하자 최북은 화가 나서 자신의 한쪽 눈을 찢어버렸다.”

〈최북초상〉을 보면, 한쪽 눈이 감긴 모습이다. 초상화의 대가인 화원(畫員) 이한철(李漢詰, 1808~미상)이 그렸다. 관모를 쓴 채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주름진

얼굴에서 직업화가의 노고가 묻어난다.

최북은 일본과 중국, 금강산을 두루 다녔다. 1748년 통신사로 일본에 갈 때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은 「최칠칠의 일본행에 부치는 시」라는 송별시를 지어주었고, 신광수는 1786년에 「최북가」에 ‘만주에서 흑룡강까지’ 다녀온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최북은 어느 겨울날 술에 취해 돌아오는 길에 성벽 아래 잠들었다가 폭설이 내려 그만 얼어 죽고 말았다고 한다. 죽음 역시 인생만큼이나 기구하다.

최북은 그림 한 장 팔아서 밥을 먹고, 그림을 팔러 평양에서 동래까지 오고 간 역경의 화가였다. 이 초상화는 그런 최북의 행각을 잘 보여준다.



강세황 <자화상>
비단에 채색, 88.7×51.0cm



강세황 <영동동구도>
종이에 수묵담채, 32.8×53.2cm

강세황, 평복을 입고 관모를 착용한 자화상

교장교장한 얼굴에 눈빛이 단단한 늙은 선비가 관모를 쓰고 평상복 차림으로 앉아 있다. 딱 봐도 자세가 예사롭지 않다.

이 <자화상>의 주인공은 관료이면서 화가였던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이다. 그런데 화가가 자신의 자화상을 전신(全身)으로 그린 것은 조선시대에 처음 있는 일이다.

강세황은 몰락한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데, 생을 바쳤다. 대대로 관직을 지낸 명문가의 집안 출신이지만 강세황 대에 와서 정치의 출사가 가로막히는 불운에 처했다. 1728년 무신난에 연루되어 오랫동안 과거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의 자화상과 자전(自傳)인 《표옹자지(豹翁自誌)》는 인생 역경을 이겨낸 불굴의 의지로 빛난다.

서울에서 가세가 기울자 강세황은 처가가 있는 안산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30여 년간 은둔생활을 하며 자신의 예술관을 갈고 닦았다. 안산에는 실학사상의 대가 성호 이익과 남인문사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강세황은 그들과 교류하며 폭넓은 문화적 소양을 쌓는 한편 그림으로 사회적 존재감을 알렸다. 이러한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1763년 그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정치에 나간 뒤, 1773년 60세인 강세황에게도 벼슬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 후 10년간 강세황의 관료생활은 승승장구하여 70세에는 연로한 고위 문신을 예우하던 기로소(耆老所)에 입소하는 영예를 누리다.

강세황은 송도(지금의 개성)를 여행하며 그린 《송도기행첩》을 남겼다. 대부분 서양화의 원근법을 적용한 수채화풍의 작품과 사실화풍의 산수화 작품이 들어 있다. 윤두서의 서양화 기법을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발전시킨 것이다. 강세황이 활약했던 18세기는 문인들이 서화를 수집하는 수장가의 폭이 넓어지고 왕공사대부 중심에서 중인들까지 확대되었다. 사회 분위기는 강세황의 편이었다.

1782년 70세를 맞은 강세황은 <자화상>을 제작한다. 연로한 강세황이 관모를 쓰고 도포를 입은 낯선 조합의 그림이다. 그는 이 <자화상>에서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을까.

작품에는 푸른색의 평복을 입고, 허리에 붉은 세조대를 착용하고, 머리에 관모를 썼다. 눈은 약간 아래로 응시하며 주름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흰 수염은 선비의 고결한 이미지를 상징한다. 푸른색의 옷은 음영으로 처리하고, 옷 주름으로 인체의 뼈대를 표현했다. 단정하게 앉은 자세에서 그의 웅골찬 정신이 감지된다. 그림의 배경에는 자신이 자화상찬(自畫像讚)을 적어 놓았다.

“사람은 누구인가? 수염과 눈썹이 희다. 머리에는 관리의 모자를 쓰고 몸에는 야인의 옷을 입었네. 마음은 산수에 있지만 이름은 조정에 오른 것을 볼 수 있네. 가슴에는 만권의 서적을 간직하였고 붓은 오악을 흔든다. 세상 사람이 어찌 알아주겠는가? 나 혼자서 낙으로 삼는다. 옹의 나이는 70. 호는 노죽이다. 그의 초상은 그가 그린 것이며 찬(讚)도 스스로 지은 것이다. 임인년(1782)” 이 글에서 강세황이 자화상을 그린 동기와 그림의 설명을 엿볼 수 있다. 평복을 입은 것은 과거 안산시절 자신의 모습이고, 관모를 착용한 것은 현재 관료인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격세지감이다. 자화상은 곧 강세황의 역사이고 인생이었다. 그는 힘겨운 생을 역전시킨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초상을 후세에 전한다.

안중식, 시대를 품은 경복궁의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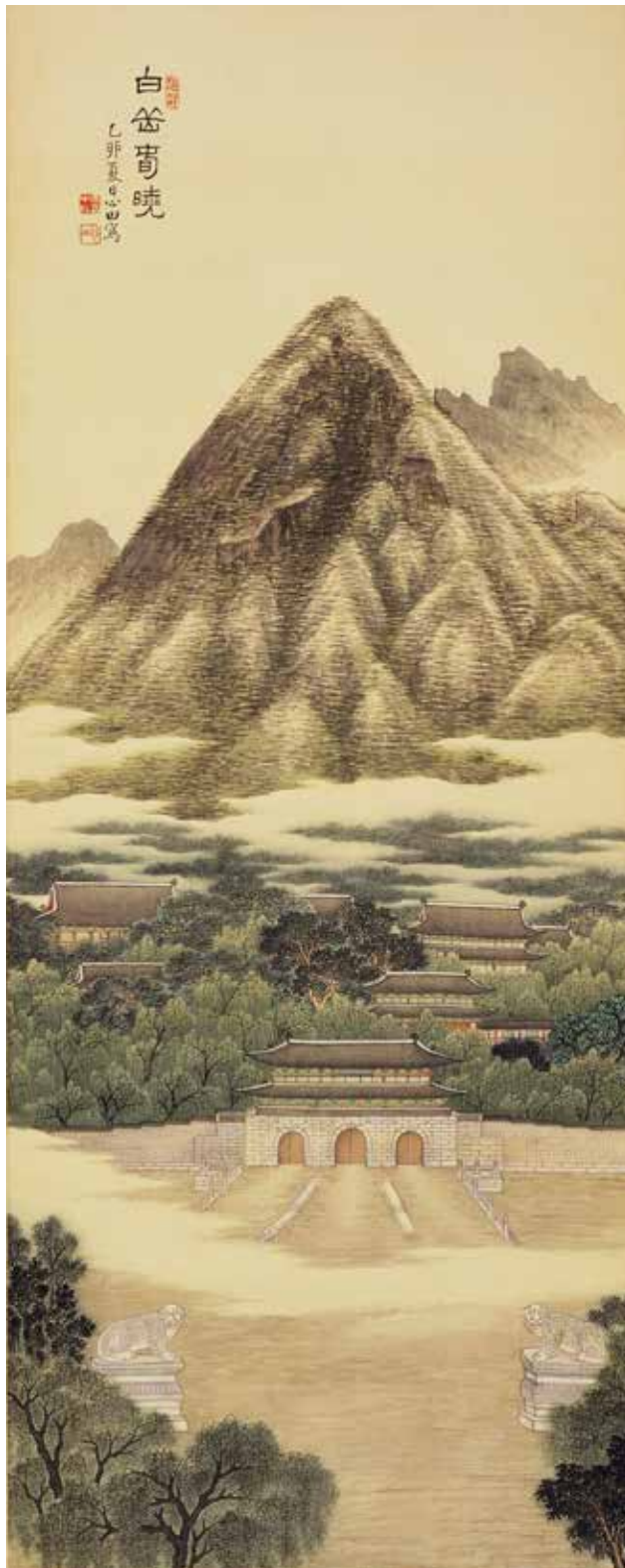
조선시대 말기, 일제 침략의 혼란 속에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민초와 애국지사 등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주권이 일본으로 넘어가자 뜻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쳤다. 나라를 위해 애국단체가 움직이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은 조선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았다. 서화계에는 오원(吾園) 장승업(張承業, 1843~1897)의 화풍을 계승한 심전(心田) 안중식(安中植, 1861~1919)과 소림(小琳) 조석진(趙錫晉, 1853~1920)이 근대화단을 지켰다. 그들은 우리의 전통서화에 서구의 미술을 절충하여 ‘근대 미술’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개척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서당에서 한학을 배운 안중식은 집에서 서화를 익혔고, 1년간 도화서에서 그림 공부를 했다. 또 당시 서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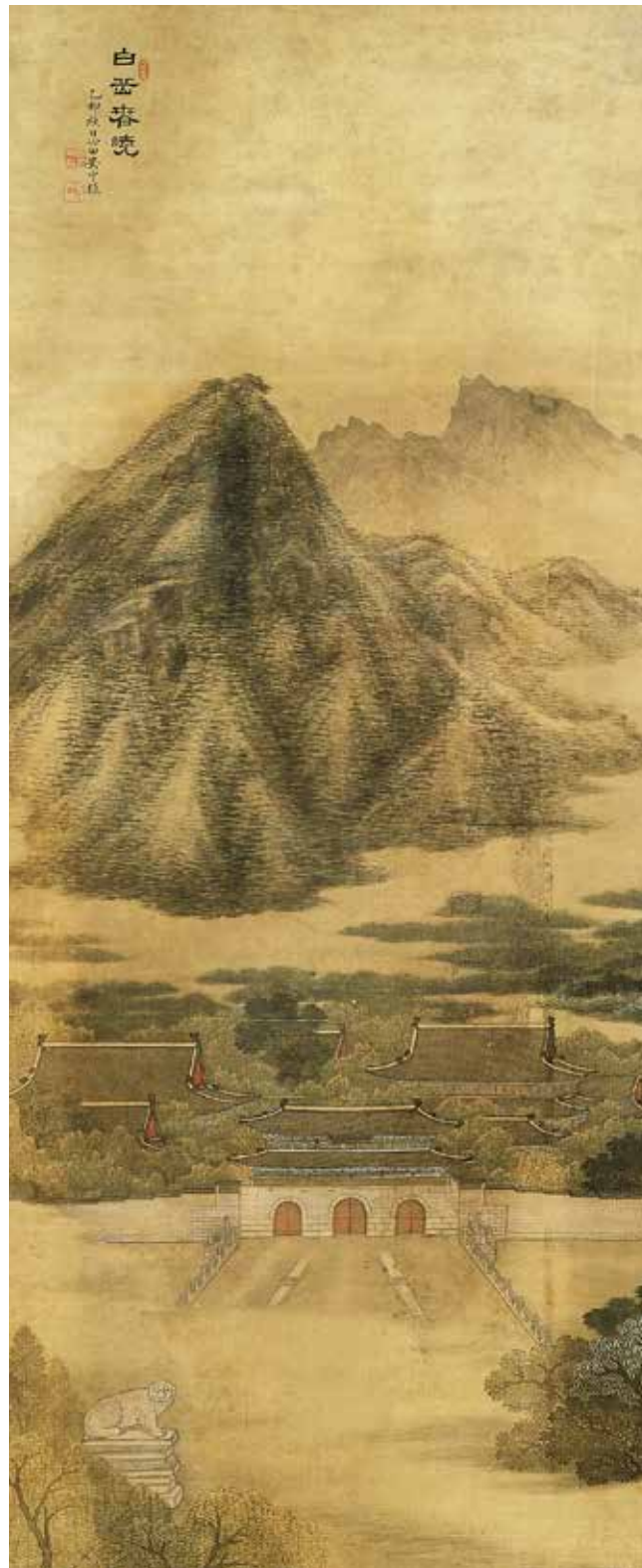
의 스타화가였던 장승업의 화방(畫房)을 방문하여 그의 화풍을 전해 받았다.

중국 청대 문인화풍인 심산유곡형(深山幽谷形) 산수화와 인물화, 기명절지화, 화조화, 영모화 등 여러 장르의 회화를 섭렵한 안중식은 조선시대 말기와 근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다. 1911년에는 조선왕실의 후원으로 전통서화가의 육성을 위한 ‘서화미술회’를 설립하여, 후진 양성에 힘썼다.

조선의 상징인 경복궁을 묘사한 <백악춘효도(白岳春曉圖)>는 안중식의 대표작이다. 이 그림은 일본이 경복궁 건물을 해체하기 전의 모습을 담은 귀중한 작품이다. 제목의 ‘춘효(春曉)’는 ‘봄날 새벽’의 의미로,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근대의 새 시대를 여는 염원을 담았다.



안중식 <백악춘효> (여름본)
비단에 담채, 192.2×50cm



안중식 <백악춘효> (가을본)
비단에 담채, 125.9×51.5cm

이 작품은 1915년 을묘년에 그린 '여름본'과 '가을본' 두 점이 있다. 여름본은 광화문 앞에 두 쌍의 해태상이 보존되어 있지만 가을본에는 이미 해태상 하나가 해체된 상태이다. 여름본은 경복궁의 모습이 풍요로운 반면 가을본은 쓸쓸하고 황량하다. 조선의 저물어가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시대의 초상이다.

<백악춘효도>는 굳건한 조선의 상징 북악산을 당당하게 수목담채로 묘사했다. 산과 건물 사이에 자욱한 안개를 처리하여 신비감을 더했다. 반듯한 기와지붕은 왕실의 든든함을 기리는 것만 같다. 경복궁의 광화문이 우리의 자존심인 양 우람하다. 앞에는 해태상이 수호하고 있다. 왼쪽 상단에는 '백악춘효'라는 제목이 있고, 안중식이 그렸다는 글에 낙관이 있다.

안중식은 교육자로서 화가를 양성하기도 했지만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심이 투철했다. 독립운동가와 교분이 두터웠으며 민중계몽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결국 1919년 3·1운동에 연루되어 심하게 조사를 받은 후, 병으로 생을 마감한다. <백악춘효도>는 풍경으로 우리 근대를 전신(傳神)한 초상으로, 그날의 역사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윤두서의 자화상과 최복의 초상화, 강세황의 자화상, 그리고 안중식의 산수화는 주어진 시대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생을 일군 이들의 얼굴이다. 이 얼굴은 한 개인사를 넘어, 시대의 자화상이자 초상으로 우리에게 묵직한 감동을 준다. 어두운 시대에 희망의 불씨를 지핀 유관순의 인물사진이 뜨거운 아우라로 우리에게 말을 걸 듯이 조선시대의 자화상과 초상화들도 흐트러진 삶의 자세를 단단하게 곧추세운다. 이들 자화상과 초상화, 그리고 인물사진은 남다른 생을 일군 이들의 자서전(自叙傳)이고 전기(傳記)이자 우리 모두의 거울이다.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화상을 그릴 차례다.

<참고문헌>

- 김남희, 『한국미술특강』 계명대학교출판, 2012.
- 유홍준, 『화인열전2』 역사비평사, 2004.
- 이경화, 『강세황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6.

김남희

대구시 미술대전 초대작가, 계명대학교 대학원 미술학박사,
계명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저서 『국재의 예술혼에 취하다』 『조선시대 감로탱화』 외

얼굴

A Face

글 원예인문학자 김해숙
사진 동아에드(주)

대체 얼굴이란 무엇일까. 세상에 닮은 사람들은 부지기수지만 77억 인구에 똑같은 얼굴은 없다. 그래서 얼굴을 이야기할 때 신비롭다는 말을 하는가 보다. 신비롭다 못해 그 얼굴을 놓고 옛사람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숱한 견해들이 제각각 그 시대 그 분야를 풍미해 온 것이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부터 문학, 미술, 관상, 생물학, 체육, 사교, 건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얼굴은 그야말로 생긴 그대로의 얼굴에서 온갖 유행활동이 주어져 얼굴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 오고 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 꿈을

풀잎에 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랴게 동그~랴게 땀들다 가는 얼굴!

잘 알려진 동요 ‘얼굴’의 첫 연이다.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르며 동심에 젖는 노래다. 우리가 아는 얼굴에 대해 아무런 흥결이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는 순수한 노래다. 그러나 이런 얼굴도 ‘허준’의 ‘동의보감’으로 넘어가면 사뭇 얼굴의 이미지는 달라진다.

우선 ‘동의보감’은 오장의 상태가 드러나는 곳이 얼굴이라고 한다. 그래서 얼굴의 다섯 부위와 얼굴의 다섯 색깔의 조합을 진단하여 몸속의 병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마, 턱, 머리, 코, 뺨 등을 세부적으로 살피고 여기에 얼굴빛을 가미하면 온갖 인간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니 대단한 눈썰미를 지닌 명의를 아니고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동요 ‘얼굴’을 불러보고 ‘동의보감’의 ‘얼굴’을 읽어 보면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변화무쌍하다는 용어로는 부족한 우리들의 얼굴이다. 쉬운 예로 남자의 얼굴과 여자의 얼굴이 다르지 않은가. 남자의 얼굴은 또 얼마나 갈라질 수 있는가. 양 같은 얼굴이며 원숭이 같은 얼굴이 있는가 하면 산적 같은 얼굴이 있고 조폭 같은 얼굴이 있다. 여자라면 양귀비 같은 얼굴이 있고 코스모스, 해바라기나 맨드라미 같은 얼굴이 있다. 여기에 웃는 모습이나 슬픈 모습, 찡그린 모습을 대입시켜 보면 사람의 ‘얼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얼굴은 하나의 풍경

필자는 꽃이나 식물을 다루는 사람이라 사람의 얼굴을 비교적 아름답게 보려 하지만 요즘 온갖 미디어의 영향으로 천태만상의 얼굴들을 마주하다 보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라는 표현들을 자신도 모르게 내뱉을 때도 많다. ‘3월의 바람과 4월의 비로 5월에 꽃이 핀다’는 서양 속담과 같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사실 꽃은 그 식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꽃얼굴도 자세히 살피면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복잡하게 조직되어 있다. 암술머리, 암술대, 씨방, 꽃밥, 수술대, 밑씨, 꽃받침, 꽃자루, 꽃턱 등이 융하게 잘 어울려 꽃이 된다. 그런 꽃잎도 관꽃잎, 종꽃잎, 갈대기꽃잎, 단지꽃잎, 바퀴꽃잎, 십자꽃잎, 입술꽃잎, 허꽃잎, 나비꽃잎 등 그 종류나 명칭도 다양하다. 그러나 꽃잎 또한 사람의 얼굴만큼 희로애락을 지녔다고나 할까. 수필가 김태길은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글에서 사람의 얼굴 헤아리듯 꽃잎들의 모습을 이렇게 헤아리기도 했다.

“피는 꽃의 우열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지는 꽃의 모습에는 깨끗한 것과 추한 것의 구별이 완연하다. 아직도 운기와 광채를 남긴 꽃잎이 바람에 휘날리며 미련 없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미 시들어 보기 흉한 꼴로 오래 매달려 있는 것도 있다”

얼굴. 변용의 대가. ‘낮을 찡그리고 살면 세월이 괴롭고, 마음이 편하면 하루하루가 잔치 기분’이라는 말대로 우리의 삶은 모든 이의 얼굴을 그대로 투영해 주고 있다. ‘고리오 영감’으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프랑스의 소설가 발자크는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다. 한 권의 책이다. 용모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풍경과 책과 거짓말이 융하게 서로 오버랩되면서 깊은 인상을 주는 글귀다. 그중에서도 풍경과 책은 이해가 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지금 시대와는 왠지 거리가 있지 않을까. 멀쩡하게 얼굴모양 짓는 사람들이 멀쩡하지 않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왜 그런 짓을 한 거지?’하고 꾸짖는 현대인들. 그렇지만 얼굴은 얼굴이다. 우리들의 얼굴은 이처럼 변용의 대가다.

아름다운 얼굴과 내면

영화 ‘페이스 오프’. 오우삼 감독의 액션. 불굴의 FBI 요원으로 분한 존 트라볼타와 그의 어린 아들을 죽인 악당 역의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급으로 나와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다. 백미는 첨단의학 기술진의 도움을 받아 악당의 얼굴을 떼어내 자신(존 트라볼타)의 얼굴에 이식한 발상이다. 끔찍하면서도 통쾌한 결말이 미국영화답지만 사람의 얼굴을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이용해 흥미를 진진하게 만든 제작진의 아이디어에는 혀를 내두른다. 얼굴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여러 편 있지만 대부분 얼굴에 나타나는 인간으로서의 자연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운 얼굴이란 마음의 정직함이 그려져 있는 얼굴을 말한다는 등의 지극히 당연한 발상들이 전체의 주제를 장악하기 일쑤다. 얼굴은 그래서 보편적인 모습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편성도 인간의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추세에는 어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오래된 미래’. 스웨덴 출신의 언어학자요 여성생태환경운동가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16년간 인도 라다크지역에 머물면서 공동체에 바탕을 둔 라다크의 전통사회가 서구문명의 유입에 따라 파괴되는 과정을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다. 최진기의 ‘인문의 바다에 빠져라’에도 ‘오래된 미래’ 라다크의 이야기가 나온다. 저자는 라다크인과의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변을 싣고 있다. “아내를 선택할 때 사람들이 찾는 특별한 자질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라다크인들은 “사람들과 잘 지내고 공정하고 관대해야 한다”며 “숨씨가 좋으면 좋고,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다는 것이다. 얼굴이 예쁘지 아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문제는 그 사람의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라다크인들은 “호랑이의 줄 무늬는 밖에 있고 인간의 줄 무늬는 안에 있다”는 격언을 항상 가슴에 품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지구인들 대부분은 예쁜 얼굴을 선호하는 게 당연시된 현실이질 않는가. 물론 라다크도 지금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니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일 듯싶다.



눈, 코, 입... 우리의 얼굴

이왕 상념에 젖을 바에야 우리 얼굴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어떨까. 먼저 눈에 와 닿는 것이 얼굴 부위의 털이다. 머리카락과 콧수염, 턱수염. 아인슈타인의 머리칼은 멋있어 보인다. 과학자들이 보여주는 이지적이고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프론티어 같은 열정이 느껴진다. 아인슈타인이 헐리우드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손꼽히는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과학의 제일 아름다운 발견은 무엇입니까?”하고 묻자 그는 여배우의 아름다운 머리칼을 응시하며 “의심없이 갈색의 금발을 지닌 사람”이라고 답해 장중의 화제를 집중시켰다. 자신의 과학적인 머리칼과 여배우의 금발이 잘 어울렸기 때문이다. 어느 흑인 축구 선수의 그 곱을 두고 땀은 머리는 어떤 힘을 주기에 곱을 저리도 잘 넣는가. 장발을 휘날리며 그라운드를 누비는 이름난 선수들. 그렇지만 장발이 한 때 우리에게는 죄가 되던 시절이 있었으니 세상일은 늘 변하고 변하는가 보다.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우리의 삼단 같은 땀기머리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지금은 하늘의 별따기다. 긴머리가 여인네들에게는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조선시대에는 나이 찬 여자가 시집갈 때 의류나 장롱과 함께 반드시 가발로 동백기름 같은 것으로 잘 손질해 가져갔다는 일화들이 전해 오지만 그런 가발이 최근에는 스트레스 등으로 빠져버린 머리카락을 커버하는 역할을 한다. 오죽하면 가발 빼고 안경 빼면 볼품없는 탈모 현대인들을 상상하는 일은 차라리 애처롭기까지 하다.

지금은 보기 어렵지만 우리에게 고유의 머리 종류들이 많았다. 어머머리, 큰머리, 새암머리, 코머리, 엷은머리, 첩지머리, 쪽머리, 귀밑머리 등 이름도 정이 간다. 여인들은 아무리 머리가 모시바구니가 되어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은 한결같은가 보다. 플래퍼 스타일이나 푸들 스타일, 로맨스 스타일, 카라벨스타일, 보브스타일, 새슨 커트 스타일 등 서구의 것에 비해 운치 있는 우리들 머리가 아닌가. 톨스토이 턱수염, 히틀러의 콧수염, 다저스의 타자 터너, 영화 ‘닥터지바고’의 오마사리프의 고드름 달린 콧수염과 턱수염, 이토록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의 취향에 따라 머리모양, 수염모양을 다양하게 손질한다. 제멋에 거위함은 아름다운 일이다. 이게 뭐? 개성이지.

눈 이야기로 옮겨보자. 흔히 눈은 진실과 이성을 상징한다고 한다. ‘눈이 뒤집히고, 눈 밖에 나며,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 등의 어귀가 이를 잘 말해 준다. 눈은 또 생명을 상징한다. 눈을 감는다거나 눈에 흙이 들어간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지만 눈이 시퍼렇다는 말은 살아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눈은 신체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마음의 창으로서 마음의 내밀한 부분도 여지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도 한다. 눈에 불을 켜는 말은 매우 화난 감정을 드러내며 제 눈에 안경이나 눈에 콩꺼풀이 씌었다는 등은 보는 모양이나 태도에 따라 인간의 지난한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해준다.

미묘한 우리네 얼굴들을 생각하다보면 그 솔한 애환들을 감춘 탈바가지들을 떠올리곤 한다. 그중에서도 하회탈은 보면 볼수록 새로움을 더해주는 이미지가 어찌나 리얼한지. 얼굴의 바깥면으로 치장해 정작 우리 얼굴들을 보지는 못하지만

결코 우리의 얼굴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하회탈. 지금은 병산탈 2개와 함께 국보 제121호로 지정돼 안동 하회마을 입구 공연장에서 상설공연을 열기도 한다. 각 시탈, 초랭이탈, 중탈, 이메탈, 주지탈, 부네탈, 백정탈, 할미탈, 선비탈도 좋지만

특히 양반탈은 항상 완벽한 이중적 희화가 너무나 가슴을 찌른다. 그래서 소실된 총각, 별채, 떡다리 탈은 어땠을까 하는 궁금중에다 그 탈 뒤의 얼굴들을 상상해보면 인간의 얼굴은 상상을 초월하는 미궁을 비상하는 상념 같은 것임을 느낀다.



어릴 적 눈싸움을 해본 적이 있다. 서로 눈을 부릅뜨고 마주보며 먼저 눈을 깜빡이는 사람이 진다. 권투나 요즈음 인기 있는 격투기 등 스포츠에도 눈싸움은 빠지지 않는다. 경기 전에 먼저 상대방과 신경전을 벌이는 셈이다. 눈은 기가 나타나는 곳이므로 먼저 상대방의 기를 제압하는 것이 경기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눈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은 마음도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영국속담이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눈싸움이다.

흔히 우리는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눈동자가 최고라고 말한다. 눈동자가 마음의 척도인 셈이다. 필자는 꽃과 인간과의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 재미난 강의를 해 오고 있다. 강연장에 올라 관중의 눈을 주시해 보면 오늘의 강의 성공도를 가늠할 수가 있다. 근심이 가득한 눈이 있는가 하면 즐거워 어쩔 줄 모르거나 철없는 눈도 있다. 탄환을 재어 겨누 총처럼 위협적인 눈이 있는가 하면 애원하는 눈이 있고, 주장하는 눈이 있고, 기웃거리는 눈도 있다. 살기에 가득찬 눈이 있는가 하면 꿰뚫어 보는 눈도 흔하다. 찌려보는 눈. 멀뚱멀뚱한 눈. 아버지가 죽어도 눈물 흘릴 줄 모르는 아주 싱거운 눈도 있다. 맹자도

“눈동자는 그 악을 덮지 못한다”며 마음속이 바르면 눈동자가 밝고 마음속이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가 어둡다고 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하고 이기적이며 돈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듯 황금만능주의 세태에서 이런 눈동자를 지니기도 어렵고 가려내기도 어렵다. 불꽃같은 눈도 있고 주위의 명암에 따라 담갈색에서 청색으로 이어 쇠빛으로 변하는 눈도 있다. 이런저런 눈들도 고작 백지 한 장만 가려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아주 미약한 것에 불과한데도 애써 온갖 눈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들 인간사라니.

눈에 관한 이야기라면 고전소설 ‘심청전’을 빼놓을 수 없다. 여기서 눈은 해와 달에 비견된다. 심청이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는 간절하기 이를 데 없다. 시력 상실로 가족, 재산, 지위마저 잃은 심봉사는 딸 심청의 희생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다. 눈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대목이다. 향가 ‘도천수관음가’에도 희명은 5살에 실명한 아들로 하여금 이 노래를 불러 광명을 되찾게 하는 대목에서 그 간절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나아가 중국 진나라의 평공이 맹인 음악가 사광과의 대화

는 길이길이 남을 만한 이야기다. 평공이 사랑에게 그대의 캄캄함이 대단하겠다고 염려하자 사랑은 ‘천하에 캄캄함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나는 그중에 끼이지도 못한다’고 답한다. 사랑의 캄캄함은 못 신하들이 뇌물로 명예를 얻고 백성이 고초를 겪고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는데도 임금이 이를 깨닫지 못함이 첫째 캄캄함이고, 충신은 등용하지 않고 재능 없고 못난 자가 등용하는데도 임금이 깨닫지 못함이 둘째 캄캄함이고, 국고를 탕진하는 간사한 신하가 존귀해지는데도 임금이 이를 깨닫지 못함이 셋째 캄캄함이고, 백성은 가난하고 아침배가 줄을 있는데도 이를 못 깨닫는 것이 임금의 넷째 캄캄함이고, 관리는 정직하지 않고 백성은 불안한데도 임금이 깨닫지 못함은 다섯째 캄캄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얼굴의 중심에 있는 코로 넘어갈까 싶다. 먼저 떠올려지는 것은 클레오파트라의 코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한 말이다. “클레오파트라의 코, 그것이 조금만 더 낮았더라면 전 세계의 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물론 더 높아졌어도 세계는 어김없이 그 양상이 달라졌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왜 하필 코일까.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얼굴이 신의 대표작이라고까지 말한다. 눈은 영혼을, 입은 육체를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다. 또 턱은 목적을 위해서 있고 코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솟아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코의 생김새를 두고 용케도 알맞은 말들을 만들어 냈다. 용코니 사자코니 매부리코니 들창코니 하고 구분 짓는다.

여기다 술주정뱅이의 빨간 코, 사근사근하고 붙임성이 좋은 계단 코, 그렇지만 우리 몸 구성에서 가장 먼저 냄새를 맡는 게 코다. 그거면 됐지 잘생긴 코가 죄다 잘 생긴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모름지기 인간의 할 일 없는 상상력이 한몫하기 때문이다.

입과 입술 차례다. 얼굴 부위에서 가장 사용하기 좋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이기도 하다. 고래로부터 명현들은 입의 소중하고 귀중함을 자주 언급해 왔다. ‘구시상인부(口是傷人斧)’라는 말도 입은 잘못 말하면 그 사람을 망치는 도끼와 같다 함이니 늘 말을 조심하라는 경계의 의미다.

그렇지만 입과 입술이 주는 편리성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리 없다. 다만 성경에서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우리의 경각심을 깨우쳐 주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자칫 입과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본질을 이해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치장에 더 바쁜 일상들을 보내기가 일쑤다. 영어를 공부하거나 성악을 하거나 웃을 때의 입모양 등 그저 아름답게만 보이고 교육적인 효과만 노려 정작 새겨들어야 하는 말들을 잊기 마련이다. 일부 치과를 중심으로 입모양 교정이 유행하는가 하면 루즈의 색깔이 수백 종류가 넘을 지경으로 그 색의 아름다움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짙다.

꽃을 보고 자연스레 미소 지어지는 미소, 천연미소, 즉 듀센 미소가 그 어떤 루즈의 치장보다 아름다운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시인 유치환은 ‘무위’라는 시에서

**“나의 눈은 보이는 바를 바르게 보기 위하여,
나의 귀는 들리는 바를 바르게 듣기 위하여,
그리고 나의 입은 그 본 바와 들은 바를
바르게 말하기 위하여 있는 것”**

이러지만 현대인들은 이런 것에 성이 차지 않는다.

그저 보기 좋고 아름다워야 하고 말도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아첨이어야 세상을 잘 사는 세상이다. 그렇지 않다면 젊은 나이에 요절한 시인 기형도의 '입속의 검은 잎'이라는 유고시집을 읽어 보면 어떨까. 절망과 허무와 불안 등 현대인들이 감출 수 없는 이면을 고뇌하며 젊은 시인이 남긴 시들은 그러면서도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이어서 일면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저항 의식마저 느끼면 우리들의 열린 입들을 성찰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다.

얼굴과 얼굴

마지막으로 귀다. 귀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들은 술하다. 잘 알려진 장 곡토의 시 "내 귀는 소라껍질, 바닷소리 그리워라"에 서부터 화려한 색깔의 천재화가 반 고흐의 잘린 귀. 왕이 되자 갑자기 귀가 커진 신라 경문왕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당 현종의 치세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마치 말의 귀에 동풍이 불어드는 것과 같구나"했던 시인 이태백의 '마이동풍'. 이미 잃어버린 것은 아무리 좋다고 한들 쓸데없다는 우리들의 속담 '죽은 자식의 귀 모양 좋다고 하지 말라'는 글귀는 진정 귀한 경구다. 그래도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에게는 귀걸이라는 장식이 무척 아름답게 느껴져 요즘은 남성들도 꽤나 애용하고 있는 시대다. 아무리 귀에 걸면 귀걸이라지만 개인의 취향과 유행이 잘 조화를 이루는 세태에서 귀걸이는 또 다른 개성의 표상이 될 수 있는가.

이만하면 우리의 얼굴들을 제법 알았으니 세상 사람들 모두 천차만별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검고, 붉고 푸르락 하고, 희고, 누렇고, 황금색이고, 객주집 칼도마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의 얼굴이 가장 좋은 얼굴이다. 꽃을 365일 만지며 강의하는 필자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꽃을 항상 만지니 얼굴이 꽃 같고 늙지 않는가봐요 라며 다가온다. 아마도 마음의 거울이 넉넉한 사람이리라.

프랑스 사람들은 아름다운 얼굴이야말로 최고로 맛있는 요리의 한 코스라고 한다. 이런 아름다운 얼굴은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적인 얼굴을 말한다. 인간적이란 국보인 '윤두서의 초상화'에서 독서광이었고 팝아티스트 엔디워홀의 작품으로 유명한 세계인의 우상 마릴린 먼로를 비롯 엘리자베스테일러, 제임스딘, 잉그리드 버거만 등 영원한 얼굴들을 떠올리면 삶에도 항상 즐거움이 가득하지 않을까.



김해숙
농학박사, 계명문화대학교 겸임교수
꽃과사람 대표, 한국원예치료협회 이사

청동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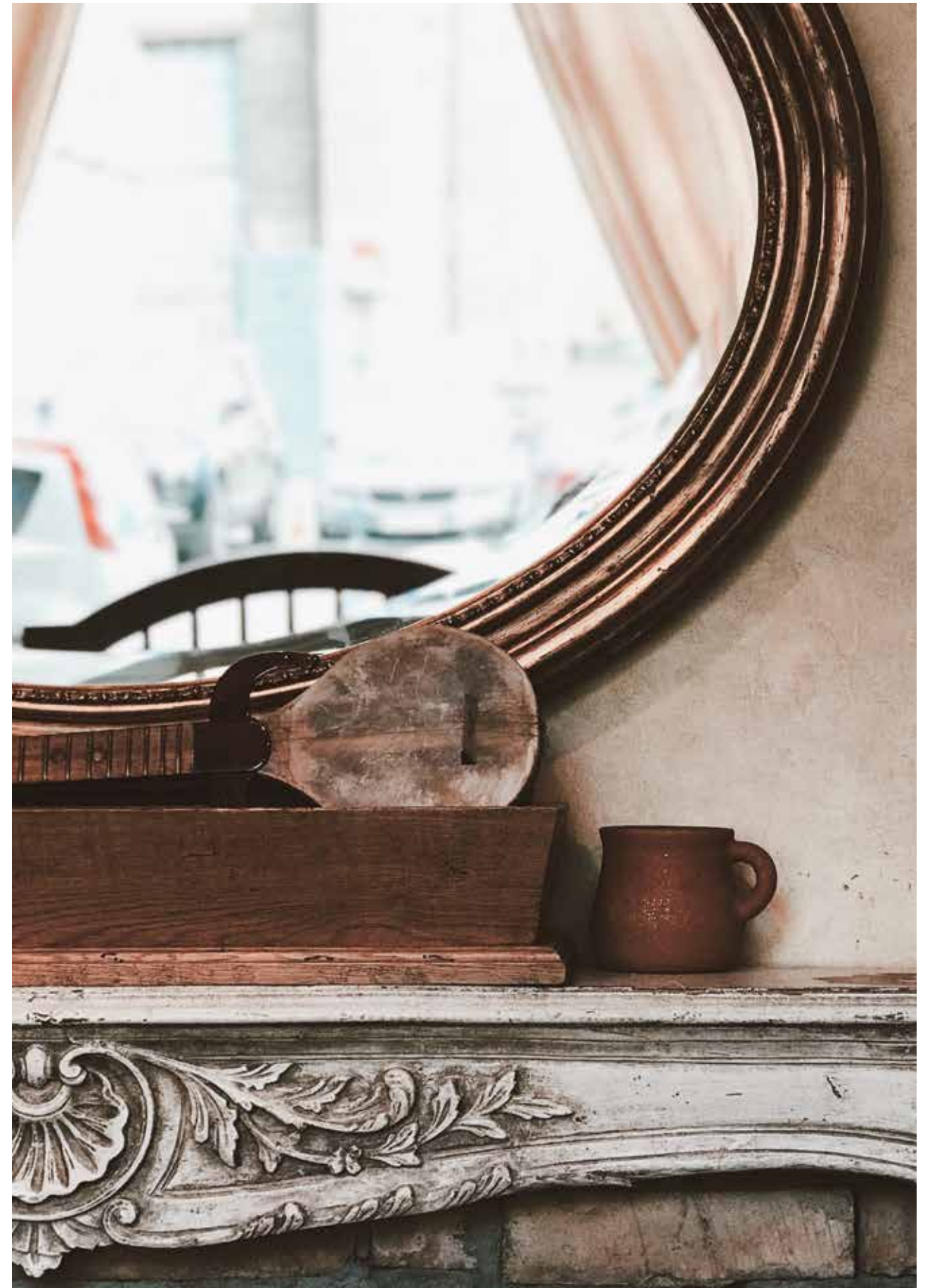
Bronze mirror

글·사진 수필가 이미영

스무 살 청년이 자화상을 그렸다. 겨우 이십 년 인생에 무슨 할 말이 많아서 자화상일까. 슬픈 듯 고통을 품은 두 눈을 감고 있다. 입 주위는 검붉은 색으로 덧칠해 입술 윤곽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왼쪽 볼에는 진청색 그늘을 드리우고 오른쪽 볼에는 분홍색 빛이 어리도록 붓질했다. 상반신은 맨몸으로 아무 꾸밈없이 배경과 거의 같은 색으로 칠했다. 상반신과 배경은 윤곽선만으로 구분했다. 회색이 주조인데 검은 붓 터치가 두어 군데 들어가고 간간이 빛나는 분홍색과 보라색이 반짝인다. 그림 속의 얼굴을 보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린 화가의 내면이 나에게 불쑥 들어왔기 때문이다. 말하고 싶지 않은 듯 감은 눈에서는 고통을 받았구나, 흐릿하게 짓이겨놓은 입술 윤곽을 보며 너는 두려웠구나, 한두 번 밝은 보라색과 분홍색 터치에서 그래도 너는 희망의 빛을 발견했구나, 그렇게 알 것 같았다. 그림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 상처받은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과정임을 보았다.

아무 움직임 없는 조용한 맨몸과 감은 두 눈이 깊은 울림이 되어 전해졌다.

그다음에는 눈을 감은 자화상을 그리다니, 마음의 창이라는 눈을 닫고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구나, 그 어린 청년의 자신감이 느껴졌다. “나는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며 앞으로는 신나게 살아갈 거야. 아팠던 지난 시간은 이제 안녕.”이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소크라테스는 조각가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미술가들은 감정이 육체의 움직임에 미치는 과정을 정확하게 관찰해서 “영혼의 활동”을 표현해야 한다고 했다. 움직임을 배제하고도 자신의 영혼의 활동을 보는 사람에게 전한 어린 화가와, 미술가는 “영혼의 활동”을 표현해야 한다는 소크라테스가 만난다면 이 위대한 철학자는 무슨 말을 할까? 세상 참 많이 변했다고 할까, 나도 옛날 사람이 다 됐구나, 하며 요즘 애들에게 감동할까, 쓸데없이 궁금해진다.





〈깃털 장식의 단 베레모를 쓴 자화상〉 1629



〈자화상〉 1665~1668

눈을 감은 자화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파울 클레의 눈 감은 소묘가 있고 눈을 뜬 건지 아닌 건지 도판으로는 알 수 없는 모딜리아니의 자화상도 있다. 그래도 보통 떠오르는 것은 이런 것이다. 양쪽이 이어질 듯 긴 검은 눈썹 아래 강렬한 노동자의 여인, 멕시코풍의 옷이 인상적인 프리다 칼로, 비스듬히 앉아 정면을 응시하는 눈빛과 가난 속에서도 말끔하게 차려입은 고희이다. 자화상이란 모름지기 이런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나는 나라고 소리치는 눈과 자신을 보여주는 옷으로 강렬한 인상을 새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화상이라고 하면 고요하고 성실하게 자신을 들여다본 모습으로 독특한 자서전을 만든 렘브란트가 떠오른다. 처음부터 꾸밈없이 인간의 살아있는 표정을 화폭에 담은 것은 아니다. 그는 17세기 상공업으로 부유하던 네덜란드에서 잘나가는 초상화 전문 화가였다. 렘브란트가 그린 초상화 한 점쯤은 벽에 걸어야 부자 행세를 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 그 유명세를 알 만하다. 부자들의 요구에 따라 초상화를 그리던 화가는 그런 그림

에서 예술적 만족을 가질 수 있었을까. 부를 얻기는 했겠지만, 예술가의 영혼은 황폐했을 것이다. 부와 명성을 누리던 그는 무절제한 생활을 하다가 나이 신에 접어들자 파산을 하고 만다. 가난해진 그는 자화상밖에 그릴 수가 없었다. 돈을 들이지 않고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은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화려함과 몰락을 차례로 겪은 후에 그는 고요히 자신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레이스 장식의 옷과 깃털이 달린 모자를 쓴 청년은 사라지고 낡은 옷에 주름진 노인이 담담하게 화면 안으로 들어왔다. 들떴던 표정은 가라앉고 이것이 인생이라고 낮게 읊조리는 철학자 같은 얼굴이 등장한다.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지만 깊어진 눈빛과 당당한 위엄이 오히려 예술가의 내면을 대변한다. 자화상을 그리면서 자신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림 실력을 늘리고 내면을 통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주문받은 초상화를 그리는데 돈 많은 화가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 진정한 화가로 성장했음을 자화상이 보여준다.

부와 명예는 떠나갔지만, 예술을 향한 진지한 탐구를 시작했다. 렘브란트가 계속해서 주문한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초상화를 그렸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의 이름이 전해졌을까. 아마도 어느 부잣집 벽을 장식하다가 유행이 지나면 잊히고 말았을 것이다. E. H. 곰브리치는 렘브란트의 자화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렘브란트는 그의 추한 모습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아주 성실하게 관찰했다.

우리가 이 작품의 아름다움이나 용모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성실성 때문이다.

이것은 살아있는 인간의 실재 얼굴이다. 여기에는 포즈를 취한 흔적도 없고 허영의 그림자도 없으며 다만 자신의 생김새를 살살이 훑어보고, 끊임없이 인간의 표정에 내포된 비밀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탐구하려는 화가의 꿰뚫어 보는 응시가 있을 뿐이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말을 건네는 두 명의 유명 여배우가 민낯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전에 몇몇 여배우들이 민낯의 흑백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 포즈도 없이 맨얼굴로 증명사진을 찍었다. 영화 〈어벤져스〉의 블랙위도우 역을 소화한 스칼렛 요한슨과 〈타이타닉〉의 아름다운 로즈 역으로 잊을 수 없는 케이트 윈슬렛이 그들이다. 두 여배우는 화장을 지우고 주름과 뾰루지가 드러난 민낯을 공개했다. 자신들의 얼굴에서 주름 이상의 것을 보라고 주문한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아름다움을 쫓지 말라고 권한다. 언제나 완벽하게 꾸민 모습으로 화려하게 등장하는 여배우들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가감 없는 민낯을 보여준다.

아무도 알아보는 이 없는 나도 맨얼굴로 외출하기란 쉽지 않다. 하물며 세계적인 여배우가 민낯을 공개하다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초라해 보이지만 앓을지 실제보다 나아 보이고 싶은 마음이 거울 앞으로 이끈다. 화장은 기본이라거나, 청춘도 아닌데 무슨 자신감이 넘쳐서 민낯으로 다니느냐고 핀잔을 주는 이도 있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이미 우리는 타인의 시선 안에 살고 있다. 초등학생들도 화장에 드라이에 치장하기 여념이 없는 세상이다. 누구는 자기만족을 위해 꾸민다고 하지만 무인도에 살면서 날마다 화장을 하고 머리 모양을 다듬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거울은 나를 관찰하는 용도가 아니라 남에게 비칠 나를 스캔하는 도구이다.

박물관 구경을 할 때 청동거울 앞에 서면 언제나 드는 생각이 있다. 저 거울로 뭐가 제대로 보이거나 했을까? 눈, 코, 입 겨우 윤곽 정도나 보였을 텐데 거울이라니 참.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확대해서 작은 티까지도 보는 나에게 청동거울은 거울이라고 이름만 달고 있는 옛날 물건인 셈이다. 만약 예쁘게 꾸미려고 청동거울 앞에 앉았다면 결과는 뻔하다. 완전 실패다. 얼마나 아래위 자매들이 봐주는 편이 훨씬 낫다. 청동거울로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

의관은 제대로 갖추었나, 정신은 잘 가다듬었나, 흐릿한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을 보며 몸과 마음을 챙겼을 것이다. 혹시 전투에 나가는 장수에게 하사한 물건은 아니었을까. 거울 앞에 서서 오늘 나의 상태를 확인하는 의식용 도구이었을 것이다. 오늘도 잘 살았니, 자문자답해보는 성찰용이었을 것이다.

내 얼굴이 예쁘게 나왔나 손으로 키워서 확인하고 나서 성에 차지 않으면 당장 지워버리는, 천만 화소를 자랑한다는 최신 스마트폰은 얼씬하지 못할 의미를 장착한 유물이다.

“총명이 과인하고 경사와 서예에 통달하였으며
서법에도 능하였다.

유희할 때는 꼭 화살을 끼고 다루면서
늘 말 타기 연습을 하였다.

그리하여 사격술이 질료하여
능히 마상에서 나는 새를 쏘아 떨어뜨렸다.”

백암 박은식 《안중근전》

“고상한 인품과 빛나는 눈으로부터
나는 그에게 비범한 첫인상을 받았다.”

대동공보 주필 이강이 평한 안중근, 김삼웅 《안중근평전》

모두 안중근 의사를 설명하는 글이다. 설명한 목적은 다르지만 나는 후자 쪽이 안중근 의사를 더 선명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후자를 쓴 이강은 하얼빈 의거를 앞두고 안중근 의사를 만났다. 그는 빛나는 눈과 고상한 인품이 의거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우리는 빛나는 눈이라는 말로 안 의사의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안중근평전》 한 권보다 그를 잘 보여주는 것은 의거 후 호송되기 직전의 사진 한 장이다. 뒤로 수갑이 채워져 쇠사슬에 묶인 사진이 안중근 의사의 자화상이자 자서전으로 다가온다. 왼손 약지를 꿰고 찍은 것이나 어머니가 지어 보낸 수의를 입고 찍은 사진도 있지만 뒤로 수갑이 채워진 전신사진은 안중근 의사의 인생을 만나는 것 같다. 남 부러울 것 없는 가정에서 잘 자란 미남 청년이 서 있다. 의거 후에 잡혀 몸은 묶여 있지만 불안한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조용한 가운데 심지가 드러난다. “나는 의병참모총장 안중근이요,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소, 죽고 사는 것을 생각했다라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려고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요, 나는 동양평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마쳤을 뿐이요.”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것 같다. 의병참모총장으로 무장의 풍모를 풍길 줄 알았지만 동양평화를 위한 지식인의 모습이 보인다. 이 사진 한 장으로 하얼빈 역에서 거사를 치르고 도망할 뜻을 품지 않았다는 안 의사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죽기로 결심한 한 사람의 얼굴이다. 내가 장한 일을 했다고 자부심을 뽐어내는 태도는 어디에도 없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붙잡혀 가야 하는 두려움도 읽을 수 없다. “나는 당연한 일을 했소, 대한의 사람일 뿐이요, 나도 했

데 당신이라고 못하겠소.”라며 독립운동의 당위성을 말하는 중이다. “영혼의 활동”을 마친 사람이 잠잠히 서 있다.

처음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보았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벅차서 눈물을 흘렸다. 몇 번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가슴이 아파서 저절로 그랬던 것 같다. 이제는 앞이 흐려지지 않고도 안중근 의사를 볼 수 있다. 살다보니 목숨이 더 귀하게 여겨진다. 부모와 처자식을 염두에 두지 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어 눈물이 나지 않는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서 대의를 위해 나를 버리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게 되었기에 감상적인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 송고한 모습 앞에 잠잠하게 되었다.

안중근 의사를 두고 안 의사라고 부르니까 어린 학생들이 안과 의사인가?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저 침묵하는 안중근 의사가 당장 입을 열 것 같다. “나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좋소, 대한 독립을 위해 몸을 던진 역사를 잊어서는 아니 되요.”할 것이다. 역사와 나를 분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역사를 잊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 내 과거였고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만든 일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자화상을 그린 어린 화가는 자신을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 미술은 밥 벌어먹기
어려운 길이니, 공부나 하라는 부모의 말에 좌절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방향을 찾지 못해 방황했을 것이다.

반대로 무릅쓸 수 있는 내 길을 발견한 청년은 얼굴을 그렸다. 지난 상처에는
눈을 감고 나의 세계로 나아가겠노라고 결심했다. 여배우들의 민낯 증명사진이나
렘브란트의 자화상도 같은 말을 한다. 얼굴은 내면이 드러나는 자리이다.
진짜 나를 보라고 한다. 진짜 나를 찾으라 한다.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눈, 코, 입의 생김새보다 그의 인격이 떠오를 때가 많다.
열심히 자기 일에 매진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삶에 대한
성실한 태도가 우러나기 때문이다. 안중근 의사의 얼굴에서 숭고함을 보는 것은
자신의 신념과 행동에 관한 확신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박물관에 소장된 청동 거울을 소환해야 할 시간이다.
거울 앞에서 자화상을 완성해가듯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않았던 것들을 보여 줄 것이다.

이미영
수필가

2019 대구문화재단 개인예술가 창작지원금 수혜



내가 부르는 또 다른 나

Sing for the new look of me

글 자유기고가 김상아
사진 서영석

노래를 더 잘 부르는 법. 바리톤 제상철은 힘 있게 부르는 것이 아닌 힘을 빼는 데 있다고 단언한다. 7월 12일에서 13일까지 옷는얼굴아트센터에서 펼쳐진 오페라 '리골레토'에서 딸을 잃은 아버지 리골레토 역을 맡은 그. 극의 마지막에 "저주다"라는 울부짖음은 '리골레토'의 절정이었다. 이쯤 되니 그의 연기가, 그의 노래가 더욱 궁금해진다. 감동적이었던 공연의 여운을 품은 채 그를 만나보았다.

Q.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나눠보고 싶다. '평화의 기도'를 듣고 반해서 성악 인생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로맨틱한 이야기를 들었다.

1980년대 중후반 무렵 우리나라 각 고등학교에 남성중창단과 여성중창단이 유행이었다. 또래에서 노래를 잘하다 보니 친구들의 추천으로 중창단에 들어가게 되었다. 중창단에서 활동하려면 크리스찬이어야 하기에 교회에 스스로 찾아가서 세례도 받았다. 남성중창단의 매력에 그만큼 푹 빠져 있던 것이다. 그 당시 송실OB합창단이 유명했는데 합창단이 부른 '평화의 기도'를 듣고 감동받았던 일은 아직도 생생하다. 공연을 본 것도 아니고, 테이프를 노래를 듣는 게 다였지만, 여전히 그 하모니를 잊을 수 없다.

Q. 진로는 오페라로 정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영남대학교에서는 개교 5개년마다 기념 공연을 올린다. 감사하게도 대학교 4학년 때 영남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공연 '아이다'의 주역으로 캐스팅되었다. 큰 무대기도 했고, 나의 첫 오페라 무대기도 했다. 부족한 실력이었지만 교수님께 열심히 지도받으며, 진짜 많이 준비했던 무대였다. 그래서인지 무대를 준비하고 공연을 올리면서 오페라의 매력에 빠질 수 있었다. 내가 아닌 역할에 몰입해서 연기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 연기를 하면 내 목소리가 훨씬 나아진다는 것도 발견했다. 노래에 '감정'이 더 잘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 무대 이후 오페라에 내 인생을 투자해도 손색이 없겠다, 생각하게 되었다.



Q. 무대에서 멋진 목소리로 관객을 만나기 때문에 왠지 인생도 탄탄대로를 달렸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힘든 유학 시절을 보낸 것으로 들었다.

유럽 쪽으로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바람대로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그때가 IMF 직후였다. 부친이 부산 세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명예퇴직을 했다. 나는 먼저 유학 생활을 시작한

상태였고, 후에 가족들이 왔기 때문에 빠르게 상황이 변화했다. 가족들이 언어와 생활에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도와야 했기에, 어느새 유학에서 치열한 삶으로 생활이 바뀌어 있었다. 그야말로 밑바닥

부터 시작했다. 주유소, 식당, 세탁소 등 안 해본 일 없이 하루 종일 일했다. 공부도 해야 했기에 하루 평균 3~4시간만 자는 경우가 허다했다.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감정을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어려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 나는 템플대학교 대학원에서 오페라를 전공했다. 미국의 학제시스템상 항상 모든 커리큘럼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서양음악사, 시창침음 등 한국에서 배운 기초적인 음악 이론들을 다시 새롭게 공부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문의 체계를 확실히 잡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최고의 자산이 되고 있다. 기본이 굉장한 자산인 클래식에서 중요한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Q. 성악가도 저마다의 창법이 있을 듯하다. 제상철은 어떤 스타일이라고 보면 될까.

중요한 것은 노래는 절대로 힘으로 부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잘 부른 노래는 결국 풀어주는 힘에 달렸다. 노래할 때면 누구나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주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내가 잡으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잡히지 않다가도 내려놓는 순간 잡히는 것이 노래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어렵다. 내 스타일이라기보다 나 또한 내려놓고, 힘을 빼고 노래하려고 노력한다.

Q. 무대에 서지 않는, 인간 제상철의 모습이 궁금하다. 특히 이번에 민간 오페라단인 '대경오페라단'을 창단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듯하다.

평상시에는 일인다역을 하며 바쁘게 지낸다. 우선 무대에 오르지 않는 나를 제외하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내가 남는다. 영남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고, 성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또한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에서 만든 '리템션 코러스' 시민합창단과 아마추어 성악교실 '고성방가' 합창단도 이끌고 있다. 생활음악인들은 취미로 합

창을 하면서 정말 행복해한다. 함께 만들어내는 하모니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것이다. 이들은 성악과 오페라에 대한 대중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어나가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요즘 새롭게 시작한 일은 단연 '대경오페라단'의 창단이다. 두 달 전 단장이라는 직함을 스스로 가지게 되었다. 예전부터 오페라 제작을 꿈꿨었지만 실현하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 민간 오페라단은 제작 여건이 너무도 열악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도박이 될 수 있는 험난한 모험을 시작한 이유는 40대 후반이라는 내 나이 때문이다. 이제 성악가로 자리매김한 지 26년 정도가 되었다. 10여 년 뒤에는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고, 후배들과 제자들이 설 무대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위기의식도 느껴졌다. 그래서 올해 '대경오페라단'을 창단했다. 막상 시작하고 나니 반응이 깜짝 놀랄 정도로 좋다. 많은 분이 도와주고 있어, 역시 일은 시작해보야 아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몸소 느끼고 있다.

Q. 바리톤의 역할이 막중하면서도 힘들기로 소문난 '리골레토' 공연을 끝마쳤다. 대경오페라단의 첫 공연으로 '리골레토'를 고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리골레토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역할이자 제일 좋아하는 오페라이기 때문이다. 리골레토는 바리톤이 타이틀인 작품이다. 물론 바리톤 역할 중 리골레토만큼 힘든 역할도 없을 것이다. 너무 자주 등장하고, 너무 많이 흥분하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번 리골레토 공연은 '부정에 의한 슬픈 죽음'이 타이틀이었다. 공연에 흐르는 주된 정서는 '저주'지만 이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감정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다. 리골레토 무대를 할 때마다 항상 마지막 장면에서 나도 울고 관객도 운다. 그만큼 감동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공연인 것이다. 이처럼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고, 임팩트 있게 관객들을 만날 수 있어 대경오페라단의 첫 번째 공연으로 선택했다.



Q. 대경오페라단이 창단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단장으로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

하반기 대경오페라단은 콘서트 오페라를 구상 중이다.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지만 여러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뵙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대경오페라단'

하면 '오페라를 오페라답게 올리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게끔 하고 싶다. 오페라는 가장 오페라다운 때 가장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극이 주는 연기와 음악이 주는 깊이가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너무 많은 각색은 지양하고자 한다. 원작에 가깝게, 그 깊이를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Q.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노래란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

노래는 내 인생의 전부다. 노래를 빼고서 제상철을 이야기할 수 없다.

청춘의 그림들

Paintings of youth

글 자유기고가 정정남
사진 서영석

대구 출신 두 작가의 '인형의 꿈' 전시회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서양화가 한승훈과 공병훈의 초창기 작업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리즈 전체를 만날 수 있었던 이번 전시회는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며 호평을 얻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개인전을 열며 굵직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서양화가 한승훈과 공병훈. 독창적인 작업을 통해 깊이 있고 날카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그들의 성장이 눈부시다.

Q. 오랜만에 대구에서 전시회를 여는 것 같다. '인형의 꿈'전은 어떤 전시회인가.

한 & 공 :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저희 둘 다 10년도 채 안 된 작가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신작을 위주로 전시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작가의 생각이 어떻게 진화하고, 그것에 따라 작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전 과정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6년 전 쯤 둘이서 함께 전시회를 열고, 이번에 한 번 더 같이 전시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타지역이나 해외 전시가 많았던 터라 오랜만에 대구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가 생겨 기쁘기도 하고, 감회도 새롭습니다.



Q. 작업의 주요 테마는 무엇인가. 테마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작품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한 : '속이 텅 빈 플라스틱 인형 같은 현대인의 모습'을 큰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그 테마를 중심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조금씩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현대인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표현하는데 집중했어요. 원하면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긍정과잉의 시대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현대인들의 허탈과 공허를 담았죠. 그러다 비극을 희극으로 풀어내면 외로움이 희석될까 싶어 방어법을 선택했어요. 공허함을 역설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오히려 전체적인 느낌을 화려하고

희망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위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 : 저는 작품에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제 얘기를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의 문제도 같이 결합되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것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다르게 생각하기를 많이 시도했어요. 그러는 과정 중에, 고전영화와 애니메이션 캐릭터 피규어를 접목하거나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미국 만화 캐릭터 스머프를 예수와 열두 제자로 대체하는 방식의 작업을 떠올렸고 또 지속적으로

되었죠. 최근 2년 동안은 제 이야기를 담는 데 더 집중하고 있는데요. '장난감', '고전'이라는 이야기는 빠고, 소재를 유리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회의 기준이 되는 상징물을 투명한 유리 형상으로 구현하고, 사회적 텍스트가 벗겨진 그 상징물을 통해 현 사회의 문제점을 하나 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Q. 두 분 다 작품이 독특하다. 현대적인 데다가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매력도 가졌다. 이러한 작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하다.

공 : 아직 중학생이었던 시절에, 당시 선생님의 권유로 전시장을 자주 가곤 했어요. 그런데 방문 횟수가 늘어날수록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미술관은 엄숙하고 진지해야 하는 걸까. 미술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대중문화인데, 너무 딱딱하고 감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입학하고 미술을 전공하면서 이러한 생각들도 점점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재미있게 여기는 장난감을 그리게 되었죠. 그게 첫 시작이었어요.

한 : 대학교 다닐 때, 저만의 '무언가'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작업을 시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시행착오도 있었죠. 당시에 인물화, 소품, 장난감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인형'이 저에게 중요한 재료였어요. 인형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닌 그런 소재잖아요. 그 속에서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모든 작품이 소중하겠지만 특별히 정이 가는 작품이 있을 것 같다. 어떤 의미인가.

한 : 2019년도에 발표한 'Find the way' 시리즈를 꼽고 싶습니다. 작년까지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작품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림이 정리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런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정리가 되는 만큼 그림도 획일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었죠.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요소들을 넣어 그림을 그려봤어요. 나름대로는 실험을 한 건데, 그렇게 얻게 된 작품이 'Find the way' 시리즈예요. 기존의 작품들과고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던 작품이라서 의미가 더 남다른 것 같아요.

공 : 이번 전시 때문에 작업을 하게 된 '누구를 위한...(3)'이라는 그림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만들어놓은 규정된 이미지를 유희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왕좌'라는 소재를 찾고 또 그 이미지를 그리게 되었는데요. 권위적인 '보스'와 수평적 '리더' 중에서 어떤 우두머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당신만의 좌표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홀로그램처럼 보이게끔 작업을 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시도한 방법이라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생기네요.

Q. 앞으로 작업 계획은? 어떤 화가가 되고 싶다.

공 : 순수 페인팅 외의 다른 작업을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작업 방식이 바뀌면서 굳이 페인팅이 아니라도 설치, 영상 등

으로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도할 기회가 생길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작가는 자신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작가가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다는 건 분명 중요한 일 같아요. 작가의 세계가 견고히 구축되었을 때,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앞으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나만의 집이 있는 화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한 : 재료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디지털 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고 있어요. 또 지금까지 선보인 작업을 대형 사이즈로 키운 시리즈도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의 작업을 돌아보면, 신작 'Find the way'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어떤 극단으로 치우쳐진 감정을 주로 다루거나, 화려하고 예쁘게 보이는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관객분들이 눈이 아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가정의 달 특별 기획전 1 <인형의 꿈>展
2019. 4. 11(목)~5. 10(금) / 10:00~19:00
(재)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갤러리

Life & Culture

문화기행
상화로, 그 안에 담긴 이야기

일상@예술
〈예술 아카데미〉 순간의 기록,
드로잉으로 떠나는 여행,
리모 작가를 만나다

Live On
〈대구색소폰콰이어〉 색소폰에 빠져들다
〈애플재즈오케스트라〉 재즈, 그 낭만 속으로

Highlight
〈공연〉 블라디보스토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Highlight
〈프리뷰〉 이이남 읽기展

Highlight
〈이슈〉 달서가족문화센터
개관1주년

Highlight
〈인프라〉 신달서여성
새로일하기센터

2019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 거리버스킹

“일상이 예술”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일상의 재발견’이자 ‘문화 예술의 대중화’를 일컫는 말이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곧 예술처럼 아름답고 향기롭다는 말이다. (재)달서문화재단은 “삶 속에 스며드는 문화 예술로 시민이 행복한 달서”를 목표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중이다. 그 중에서도 이번 제9호 문화만개에서는 달서구의 핫 플레이스로 거듭날 ‘상화로’ 이야기와 일상의 평화와 행복을 그려내는 ‘드로잉 여행’, 아름다운 음악회 공연과 이색 전시회 등을 소개한다.

달서구 지역축제 〈2019 장미꽃 필(Feel) 무렵〉 축하콘서트
2019. 5. 10(금) 바리톤 김동규
이곡장미공원

문화기행

상화로, 그 안에 담긴 이야기

글 자유기고가 이경애

사진 서영석

A place where history breathes

相和路

상화로를 아시나요?

상화로는 항일 민족시인 이상화를 상징하는 길이다. 월곡네거리에서부터 유천교네거리에 이르는, '진천천' 복개구간 3.2km에 달하는 길을 말한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월곡 우배선 선생을 기리는 월곡로와 더불어 달서구의 인물명을 딴 대표 도로이다. 1998년 총 11km에 달하는 진천천 복개가 끝나고 도로명을 지을 때, 유천교네거리 인근에 상화 시인 묘소가 있다 해서 '상화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상화로가 생기기 전 이곳은 '진천천'이라는 물길이었다. '진천천'은 달비골과 수밭골 두 곳에서 시작한 도랑이 채정마을(상인 3동) 밑에서 하나가 되어 화원유원지 부근의 금호강과 낙동강이 합쳐지는 곳으로 이어지는 하천이다. 유천교 위쪽을 '미리내'라 불렀는데, 한자로 쓰면서 열두 간지의 하나인 용을 따서 '진천'이라 썼고, 유천교 아래쪽은 '흐르내'라 불렀는데 한자로 쓰면서 '흐를 유'자를 따서 '유천'이라 지었다. 즉 '진천천'은 '미리내'와 '흐르내'가 합쳐진 하천이다.

2019년 현재 상화로 8차선 대로 양 옆으로는 진천동, 상인동, 도원동, 대곡동이 인접해 있다. 이들 동네를 대표할 만한 문화 관광 자원으로는 상화기념관·이장가문화관을 비롯하여 선사유적공원, 월곡역사유적공원, 월광수변공원, 대구수목원 등이 있다.

달서구는 지역의 선사시대 유적들을 테마로 한 '선사시대로'코스와 더불어 이상화기념관, 대구수목원까지를 연계하여 문화관광 벨트화하고 상화로 일대를 침터와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는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역사·문화 콘텐츠로 꽃 피는 상화로(相和路)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은 달서구가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2016년 10월, 국토부로부터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까지 총 50여 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상화 거리와 문화탐방로를 조성, 상화로 환경을 개선하며,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달서구는 대구수목원을 지금 규모보다 세 배 정도 확장시키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2021년 즈음이면 상화로 일대는 선사유적공원, 대구수목원, 이상화기념관 등을 연결하는 하나의 루트가 형성된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이라 하겠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 달간 매주 수,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달서구청 4층 강의실에서는 '상화로 문화기행 주민역사리더 과정'수업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은 지역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주민으로 결성된 '상화로 도시재생 문화기행 주민협의체'가 직접 기획, 진행한 프로그램으로서 이상화 시인과 월배 지역에 대한 강의와 체험, 탐방 등이 10차시에 걸쳐 이어졌다. 향후 이들 주민협의체는 상화로 일대의 마을 이야기를 조사·발굴하고, 교육과 문화 행사를 통해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을 알리는 등 역사,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 한다.

상화로는 시인의 길, 우인의 길이다

사실 2006년 월성동 아파트 건립을 위한 발굴조사에서 구석기시대 석기 제작장 유적과 13,184점의 석기 유물이 발견되면서 달서구는 대구의 역사를 새로이 썼다. 진천천 유역 일대에서 발견된 석기 유물은 진천천 일대가 구석기 기술의 집약지임을 보여주었다. 이 말은 곧, 앞산에서부터 낙동강으로 펼쳐지는 월배 선사지 일대가 선사 시대부터 우리 삶의 터전이었으며, 선사문화의 꽃이 피었던 곳임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 대구수목원 삼거리에는 '2만여 년의 시간 여행'을 떠난 거대 선사인 석상이 만들어져 있다. 총 길이 20m, 높이 6m의 조형물은 말없이 눈을 감고 있다. 이상화 시인이 이 조형물을 보았다면 무엇이라 했을까.

시인 마리아 릴케는 시인(詩人)을 가리켜 '시인(視人, sehnder Mann)' 즉, 보는 사람이라고 했다 한다. 시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어쩌면 모두가 시인일지도 모른다. 다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이제 시인의 길, 상화로를 지날 때면 우리도 시인처럼 마음의 눈을 떠보자.



상화로는 공존의 길, 화합의 길이다

도시화 물결을 타고 아파트가 들어서며 그 모습은 점점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이곳 상화로는 역사와 전통을 숭상하며, 온고지신의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산업화, 근대화의 파도에 휩쓸려 지켜야 할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켜켜이 쌓인 시간의 지층 위에 이웃과 더불어 사는 전통들이 남아 있다.

지금도 매년 정월대보름이면 인근 마을에서는 주민들의 안녕과 무병장수, 풍년을 기원하는 동제가 열리고, 줄다리기와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 한판이 벌어진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인물, 부국강병을 위해 인재를 길러낸 과거의 인물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상화로를 따라 반짝인다.

소멸과 탄생, 축적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변화와 수용을 거듭하는 상화로.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공존과 화합의 삶을 가꾸어 가는 곳. 진천천 물길의 새 길로 거듭난 것처럼 산과 강이 보듬은 넉넉한 자연의 품에서 상화로는 오늘도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더욱 새로운 날을 꿈꾼다.

“상화로를 가면 꼭 들러보세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상화기념관·이장가문화관”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명천로 43번지 대곡 성당 건너편

민족시인 이상화를 비롯하여 독립 운동 및 계몽 운동 등 대구 근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경주이씨(월성 이씨) 논북공파 일가인 ‘이장가’를 알리는 기념관이다. 전시관은 2층으로 되어 있으며,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이장가의 주요 인물 자료와 유품 등이 300여 점 전시되어 있다.

대한독립군으로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이상정 장군, 우리나라 최초의 IOC 위원인 이상백 박사, 대한수렵협회 회장이자 저술가로 활동한 이상오 선생 등 이상화 시인과 함께 ‘용봉인학’으로 불리는 4형제의 사진과 자료뿐만 아니라 4형제의 백부이자 이장가 종손으로 구한말 민족 계몽운동에 앞장섰던 이일우 선생의 필기도구, 서적, 공책 등도 살펴볼 수 있다.

또, 이장가 일가의 미공개 사진 50여 점과 이장가의 가보인 ‘이장록’, ‘우현서루 편액’, 그리고 이상정 장군의 딸인 선희 여사가 시집갈 때 상화 선생이 직접 본문 뜻을 풀이해서



선물했다는 ‘24호도 병풍’ 등 한국 근현대사를 알아볼 수 있는 주요한 사료들도 전시되어 있다. 전시관 옆에는 상화 시인 묘소로 가는 길이 있다. 나무들이 울창한 길에는 이장가의 재실 ‘남재(南齋)’와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모지 앞에 지은 집, 제각이 있다. 이곳은 한국전쟁 때 남침한 북한 군들의 막사로 쓰였다고 한다.(중구 서성로에 있는 이일우 고택은 국군지휘 본부로 사용되었다) 제각에는 원래 문이 없었는데, 북한군 침입 후 철문을 달았다고 한다. 제각 옆 비석에는 1937년에 집안의 제사 방법을 적은 절목이 적혀 있다.

어린 날, 당신의 꿈은 무엇이었나?

그림에 대한 꿈의 날개조차 퍼지 못한 채 가슴속에만 묻어둔 채 살아온 건 아니신가? 만약 그렇다면 리모 작가가 진행하는 '드로잉으로 떠나는 여행' 강좌를 강력 추천한다. 하루하루 똑같은 날, 무료한 일상에 반짝반짝 생기를 불어넣고 싶다면, 혹은 아름다운 경관과 풍경 속에서 낭만과 사색을 즐기고 싶다면, 일상을 예술로 바꾸는 드로잉 여행에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권한다.

Q. '드로잉으로 떠나는 여행' 수업, 특징은 무엇인가?

이 수업은 입문자, 그림이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했던 분들이 자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다져주는 수업,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는 수업이라 할 수 있겠다. 단기간에 실력을 키운다기보다는 오랜 시간 자신의 그림을 즐겁게 그릴 수 있는 관점이나 태도를 만들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Q. 2019년 상반기 수업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한다면?

첫 시간 수업은 몽골, 티벳 등 아시아 지역을 위주로 설명하는 수업이고, 두 번째는 동유럽,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런 동유럽 이야기, 마지막은 북유럽 이야기다. 각 지역의 문화, 건축과 디자인, 그리고 거기서 느꼈던 아름다운 자연 등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Q. 드로잉을 통해 삶이 바뀔 수 있을까?

그렇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작가 데뷔할 무렵에는 그림이라는 게 '사진을 대신하는 이미지 기록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했다. 객관적이어야 하고, 사실적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주 그림여행을 해 보니까 꼭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여행을 좋아하고 어떤 대상을 좋아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도 알게 되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확장되고 있다.

Q. 드로잉 작업 장소로 추천해주고 싶은 여행지는?

나라든, 도시든, 실은 너무 많다. 그래도 추천하자면 스위스 동부의 교육도시, '장크트 갈렌'과 스위스 수도 '베른'을 추천한다. 장크트 갈렌에는 스위스의 수도원, 수도사들이 400~500년 동안 지켜온 오래된 도서관이 있다. 그곳은 사진을 못 찍는 공간이다. 수첩 하나, 볼펜 하나를 들고 들어가 경비원한테 그림을 그려봐도 되겠냐 했더니, 기분 좋아하면서 의자를 내주더라. 거기 앉아서 그림을 그렸다. 사진으로 남길 수 없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더 가치가 있다.

베른은 도시의 존재 자체가 좋았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며 200~300년 동안 외형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빙하가 녹아내린 옥빛 강물과 최장 길이가 11킬로미터에 달하는 석조 아케이드가 특히 인상적이었다.

Q. 리모 작가가 수강생들에게 드리는 한 말씀

좋아하는 일은 취미일 때 가장 즐겁다. 너무 거대한, 남을 압도하는 그림을 그리려 하지 마시고, 그리는 과정이 즐거운 그림을 하신다. 사이즈도 너무 큰 것 말고 손바닥만 한 수첩 크기에서 시작하시면 된다. 하나의 그림을 한두 시간 안에 즐겁게 완성하는 경험을 자주 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

Drawing on dreams



스위스 장크트 갈렌 수도원도서관(2013)



리모 작가 프로필 :

여행작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재)달서문화재단 <동행> 프로젝트 드로잉 강사,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여행드로잉 강사, 2018 대구여행 스케치 공모전 심사위원. 저서로는 여행 에세이 '시간을 멈추는 드로잉', '드로잉 제주' 등이 있다.



피렌체 두오모

Live on
대구색소폰콰이어

색소폰에 빠져들다

Saxophone Choir

글 자유기고가 정정남
사진 서영석

저녁놀이 질 무렵, 웃는얼굴아트센터 광장 앞이 북적이기 시작했다. 가족, 친구, 연인 등 공연을 보기 위해 청룡홀로 향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빛났다. 색소폰 연주자들만으로 이루어진, 흔치 않은 공연이라 더 흥미롭고 새롭게 느껴진 것도 사실. 한편으로는 색소폰만으로 어떻게 클래식을 연주하고, 다양한 음역을 오갈 수 있는지 호기심도 생겼다. 하지만 이러한 호기심은 색소폰에 대해 잘 몰라서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대구색소폰콰이어'의 무대가 시작된 순간,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가진 잠재력은 넓고도 깊다는 걸 깨달았다.

알고 들으면 더 재미있는 연주회

5월 2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청룡홀 안이 관객들로 가득 찼다. 오늘 공연을 선보일 연주단체는 남경림 음악감독이 이끄는 '대구색소폰콰이어'다. 열세 명의 색소폰 전공자들이 모인 '대구색소폰콰이어'는 대구 지역에서 클래식색소폰 전문 연주자로 구성된 최초의 전문단체다. 클래식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를 소화하는데, 색소폰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연주자와 관객 모두가 호흡할 수 있는 공연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5회의 정기 연주회 및 다수의 기획 연주를 통해 관객들을 만나며 평판을 다졌다. 공연 시작을 알리며 연주자들이 무대에 올랐다. 연주자들이 자리를 잡는 동안 관객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본격적인 연주에 앞서, 남경림 음악감독이 색소폰의 역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다.

“색소폰은 1840년께 벨기에 음악가 겸 악기발명가인 아돌프 삭스가 개발했습니다. 삭스 이전 시대에 활약한 모차르트, 베토벤의 교향곡에서는 색소폰을 발견할 수 없지만 이후 클래식 음악에서는 종종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프라노·알토·테너·바리톤 등 색소폰의 종류도 함께 설명해주었는데, 출연진들이 직접 악기를 들어 보일 때마다 관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평소 잘 몰랐던 색소폰에 대해 짧게라도 알고 나니, 공연을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울림을 더하는 색소폰 합주

첫 곡은 'Instant Concert'였다. 이 곡은 1970년에 헤롤드 월터스가 아들을 위해서 작곡했다. 3분 10초라는 짧은 곡 안에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 징글벨, 종소리 등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음악들이 빠르게 흘러간다. 빠른 템포와 색소폰의 음색이 어우러져, 30곡을 듣는 동안 지루할 틈 없이 재미있었다.

바로 이어서 들려준 곡은 롤프 뢰블란의 'You Raise Me Up'이다. 대중적으로도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이 곡을 색소폰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궁금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의 협주로 시작된 곡은 청아한 소리를 내는 소프라노 색소폰의 독주로 정점을 찍었다. 독주자의 매력

을 발산하는 데 좋은 선곡이었을 뿐더러 아름다운 곡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하모니였다.

다음으로 베토벤의 'Adagio Cantabile'가 합주되었다. 앞서 설명한 바 있듯, 색소폰은 베토벤 이후에 만들어진 악기이다. 때문에 그의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편곡이 필요하다. 이에 '대구색소폰콰이어'에서는 자체적으로 곡을 편곡하여 색소폰만으로도 표현 가능케 만들었다. 베토벤의 곡을 연주하는 데 있어 스스로도 고민이 많았다는 남경림 감독의 걱정과 달리, 잔잔하면서도 리드미컬한 특징을 가진 'Adagio Cantabile'를 무리 없이 소화했다. 이어서 구스타브 홀스트의 'March',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이 연주되었다. 오케스트라와 비교해 웅장한 면은 덜했지만 색소폰의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음색이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15분간의 인터미션이 끝난 후, 선보인 곡은 영화 '어벤져스'의 메인 테마곡이었다. 비상하는 듯한 느낌의 곡에 긴장감을 더한 연주로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비장한 분위기가 감도는 레미제라블의 OST인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역시 감동적으로 연주해내 박수갈채를 받았다. 재즈음악 'Zoot Suit Riot'를 비롯한 'Sweet Caroline', '김광석 Medley'가 이어졌고, 마지막은 '캐리비안의 해적 Medley'가 장식했다. 고조된 분위기 속에 관객들은 앵콜을 연호했고, 앵콜곡을 끝으로 공연은 마무리되었다.

때로는 무겁게, 때로는 활기차게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관객들에게 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한 공연이었다.

봄날처럼 따뜻하고 반가웠던 공연

'색소폰은 천 가지 얼굴을 지닌 악기'라고 누군가가 말했다. 가장 고상한 음악에서부터 가장 대중적인 가요음악까지, 거기에 어울리는 표현이 가능한 악기이기 때문이다. 이번 공연을 보고 나서 색소폰과 또 그 합주에 대해 새로이 알게 되었다. 색소폰 합주로 가득 채운 90분은 오랜 겨울을 보내고 다가온 봄날 같았다. 봄날처럼 따뜻하고 반가운 선물을 전해준 '대구 색소폰콰이어'에게 감사하며, 그들의 무대가 오랫동안 사랑받길 바란다.

한편 이번 공연은 예술키움시리즈 세 번째 공연이다. 이 시리즈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의 우수 예술단체를 발굴하고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는 기획으로 마련됐다. 올해는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2019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 지원 받아 진행 중이다.

Live on
애플재즈오케스트라

재즈, 그 낭만 속으로

Spring Jazz Concert

글 자유기고가 김상아
사진 서영석



가만, 듣고 있노라면 저절로 리듬을 타게 되는 음악이 있다. 연주자의 즉흥연주가 매력적인 재즈가 바로 그 장르이다. 지난 5월 17일, 봄밤의 낭만적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재즈 콘서트가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에서 펼쳐졌다. 대구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2019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웃는얼굴아트센터와 함께 선정된 '애플재즈오케스트라'의 리드미컬한 공연이 펼쳐진 그 현장을 소개한다.

PM 3:30 꼼꼼하고 철저하게, 리허설

공연 4시간 전, 웃는얼굴아트센터의 청룡홀에 리허설을 앞둔 연주자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더 완벽한 무대를 위해 'Spring JAZZ Concert'의 총괄을 맡은 백진우 지휘자의 감독 아래,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음향 및 동선을 점검하는 과정이 신중하게 이어졌다. 1999년에 창단하여 21년째 호흡을 맞춰온 이틀이다 보니 리허설에서도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가 느껴졌다. 단연 수많은 콘서트로 다져진 국내 최고의 재즈오케스트라다운 모습이었다. 리허설이 끝나갈 무렵, 웃는얼굴아트센터에 관객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봄과 더불어 잘 어울리는 재즈 공연이기 때문일까. 공연을 관람하러 온 관객들의 다양한 연령층이 인상적이었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부터 데이트를 즐기러 온 연인, 나들이를 나온 가족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공연장을 찾았다. 봄의 절정을 맞은 5월 중순, 관객들은 공연을 기다리며 여유로운 금요일 저녁을 만끽했다. 따뜻한 봄날의 밤, 그야말로 봄의 재즈는 설렘이었다.

PM 7:30 환호 가득했던 청룡홀, 재즈콘서트

배효성 아나운서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시작된 이번 'Spring JAZZ Concert'는 웅장한 재즈 곡으로 화려한 막을 열었다. 뒤이어 시작된 흥겨운 재즈 선율에 연주 중간부터 관객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전형적인 재즈 공연보다 대중적인 공연을 선보인 만큼 바이올린, 첼로 등 클래식 악기 연주자들도 눈에 띄었다. 또한, 오리지널 재즈곡들 이외에도 라틴 스타일의 곡은 물론 펑키한 곡까지, 여러 스타일의 곡들이 이번 공연을 한층 다채롭게 만들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호응을 이끈 무대는 역시 대중가수 적우의 초청 무대였다. 이미 애플재즈오케스트라와 몇 번의 합동공연을 가진 터라, 이번 무대에서도 끈끈한 호흡을 선보였다. 적우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한편의 모노드라마 같은 몸짓은 관객들에게 최고의 몰입을 선물하기도 했다. 특히 조용필과 이선희의 히트곡을 부를 때는 절반 이상의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리듬을 타며 공연을 즐겼다. 관객들의 신나는 호응에 힘입어 한달음에 관객석으로 내려온 적우는 관객들과 가까워서 호흡하며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유도했다. 준비된 곡이 끝나자마자 앵콜 요청이 터졌다. '가슴이 뻥다'를 열창한 적우는 물론 관객도 눈물을 훔친, 교감의 무대로 앵콜곡이 마무리됐다.

뒤이어 다시 흥겨운 무대가 이어졌다. 애플재즈오케스트라 이응진 보컬의 시원한 목소리가 청룡홀을 가득 메운 것이다. 특히 얼마 전 영화로도 제작되어 다시금 인기를 얻은 '퀸'의 명곡들을 재해석한 무대는 관객들이 함께 부르며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사했다.

PM 9:00
긴 여운을 남긴, 봄밤

매회 새로운 레퍼토리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재즈의 대중화를 실현해나가는 애플재즈오케스트라. 이번 'Spring JAZZ Concert' 역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도 여운이 남은 관객들은 오래도록 청룡홀을 지켰다. 아버지와 함께 재즈 공연을 관람하러 온 송세린 씨(대명동)는 “학교 레포트 때문에 처음으로 보게 된 재즈 공연이었지만 아빠와 함께 봄과 밤과 재즈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번 공연의 코러스 가수로 참여한 아들 박효석 씨의 초대로 오게 되었다는 이태자 씨(효목동) 역시 “마지막 엔딩에서 많은 울림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재즈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다”라며 앞으로의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봄뿐만 아니라 신나는 여름을, 축축한 가을의 밤을 재즈로 수놓을 예정인 애플재즈오케스트라. 앞으로도 그 계절에 어울리는 공연을 통해 관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예정이다.

Mini Interview

재즈의 매력 속으로_백진우 Conductor

Q. 애플재즈오케스트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애플재즈오케스트라는 1999년도에 창단하여, 올해로 21년째 활동 중입니다. 대구지역은 문화예술의 분야가 다소 편협한 편인데, '재즈' 공연을 앞세워 다양하게 활동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선보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앞장선다는 자부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재즈의 매력과 재즈 공연을 더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재즈곡도 작곡자와 편곡자가 있지만, 공연할 때 연주자가 즉흥으로 연주하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때문에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클래식과 달리 재즈 공연은 보다 자유분방하죠. 그렇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공연을 즐겨도 됩니다. 공연장에서 아기가 운다면 그 또한 함께 있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이 되죠. 우리 모두 서로 연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재즈 공연의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올해 대구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2019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만큼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관객들과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 12회째를 맞이한 '대구국제재즈페스티벌' 역시 가을에 개최 예정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공연들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재즈공연을 선보이는 데 앞으로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앨범 제작도 계획 중입니다. 유튜브나 SNS 채널에서 보다 가깝게 재즈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ighlight 공연

블라디보스토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Vladivostok symphony orchestra



글 · 사진 허정무(웃는얼굴아트센터 문화기획팀)

웃는얼굴아트센터는 2019 기해년을 맞아 새해의 희망을 품은 2019 신년음악회 <블라디보스토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을 1월의 마지막 날,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하였다.

새해 서막을 연 세계 수준의 오케스트라

2019년 첫 번째 공연으로 선보인 2019 신년음악회는 웃는얼굴아트센터의 명아티스트시리즈로 마련되어 지휘자 노태철과 ‘블라디보스토크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였다. 노태철 지휘자는 동양인 최초로 비엔나 왈츠 오케스트라 프라하 모차르트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역임하였고, 러시아 아쿠티아자치공화국 국립오페라발레극단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며 2018년 러시아 사하공화국 예술부분 최고 훈장을 수상한 정상급 지휘자이다. 블라디보스토크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쁘리모르스키 주립 라디오 오케스트라’로 창단하였으며 1993년 주립 필하모니 소속의 블라디보스토크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발

전한 8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러시아 동부를 대표하는 세계 수준의 오케스트라이다. 창단 이후 로스트로 포비치(첼로.M.Rostropovich), 에밀 길레스(피아노.E.Gilels), 아쉬케나지(피아노.V.Ashkinazi), 스피바코프(바이올린.V.Spivakov), 유리 바쉬메트(비올라.J.Bashmet), 플레티노프(피아노.M.Pletnev) 등 당대 최고의 세계적인 연주자들을 초청하여 공연을 가지면서 러시아 동부 정상의 오케스트라로 발전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2000년 노태철 지휘자가 처음으로 지휘봉을 잡은 이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음악축제를 하면서 호흡을 맞추는 가족 같은 오케스트라이다.

화려한 출연진으로 꾸민 풍성한 무대

이번 음악회엔 블라디보스토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솔리스트와 아쿠티아 국립오페라 발레극장의 주역 솔리스트와 함께 지역의 대표 성악가로 국제적 명성을 자랑하는 이주희(소프라노), 신현욱(테너)이 출연하여 음악회의 완성도를 높였다. 게다가 1991년 창단하여 지역민에게 많은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달서구립합창단도 출연하여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화려한 출연진 때문이었을까? 공연 전부터 구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공연 1주일 전 사전 배부했던 입장권은 배부 1시간 30분만에 매진되었고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관객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더 많은 구민들에게 공연을 선보이고자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리허설을 공개 리허설로 변경하였는데, 공개 리허설도 본 공연만큼이나 뜨거운 관심과 반응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환영하였고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보답하였다.



New year with beautiful music

관객들과 소통하는 감동의 울림

오전부터 내린 폭설로 공연에 차질이 있을까 하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공개 리허설에도 많은 관객들로 객석이 북적였고, 본 공연엔 현장입석권을 발행할 정도로 많은 관객이 공연장을 찾았다. 2019년의 첫 번째 공연인 신년음악회는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의 라데츠키 행진곡으로 경쾌하게 시작하였다. 이어지는 곡들은 모차르트, 푸치니, 베르디, 도니제티 등 명작 오페라를 비롯해 영화음악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맞이했다. 특히 공연 중간 노태철 지휘자가 곡 해설을 진행하여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관객들도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관객과 소통하며 웃음 가득했던 곡 해설 시간과 수준 높은 연주, 그리고 세계 수준의 성악가가 들려주는 아리아 등은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였다. 신년음악회의 마지막 곡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축배의 노래”였는데 달서구립합창단의 합창과 함께하여 더욱 웅장하고 화려하게 마무리를 장식하였다.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2019년을 화려하게 시작한 웃는얼굴아트센터는 연극, 오페라 등 그동안 접하기 힘들었던 장르의 공연들을 선보이고 관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맞이하려 한다. 많은 관객들에게 문화를 통한 웃음과 행복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부단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미디어 아티스트의
'살아 있는 그림'을
볼 수 있는 기회!

디지털 명화나 산수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 동서양 고전 명화나 산수화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작품으로 재탄생해 발길을 사로잡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단 한 순간도 놓칠 수 없어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 없는 환상의 세상.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전이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재)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펼쳐진다.

삼성전자 전속협찬 작가, UN-UNIVERSIADE EPICS FORUM 선정위원 & 포럼 연설자, WCC 세계자연보전총회 홍보대사, 광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준비자문위원, 백남준 뒤를 잇는 미디어 작가 등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작가 이이남. 그는 누구인가?

스토리를 담은
미디어아트 -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선물할 터

그의 작업을 보면 의문이 생긴다. 왜 사람들은 그의 작품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가? 현대미술의 가장 큰 담론이자 숙제인 '대중과의 소통'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그의 작업은 대중적인 감상 코드를 읽어 낼 뿐만 아니라 미술사적인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그는 대중에게 친숙한 명화에 새롭고 재미있는 디지털 이미지들을 추가해 새 생명과 생기를 불어넣는다. 국내 고전뿐만 아니라 서양의 명화 작품도 새롭게 재해석하여 신선한 감동을 선사한다.

모나리자 그림 위에 폭탄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 다시 꽃이 피어나는 것을 형상화한 '모나리자-폐허' 작품은 폐허 속에서도 희망의 꽃이 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는 한 남자가 하늘에 별을 띄우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름답게 펼쳐 보인다. 이 외에도 '진주목걸이를 한 소녀'를 비롯하여 '만화병풍' '단발령 망금강' '꽃과 만물'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뉴미디어 아트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렇듯 우리에게 익숙한 고전과 명화를 통해 그는 공유되는 지점을 발견하며 그만의 새로운 시각과 해석을 불어넣는다. 뿐만 아니라, 중국 상하이와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에 머물며 전시를 개최하는 그의 모습은 동양과 서양, 회화와 미디어의 경계, 현재와 과거를 접목시켜서 이분되는 세상을 하나의 유기적인 세상으로 확장한다. 그의 작업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걸까?

Highlight _ 프리뷰

이이남 읽기展

Living paintings from Lee yi nam

| 글 · 사진 정지연(웃는얼굴아트센터 문화기획팀)



김홍도 묵죽도, 2013, LED TV 6min 9sec

전남 담양 출신의 이이남 작가를 처음 본 것은 2014년 대구미술관 네오산수전 “미디어 아티스트-이이남” 작가와의 만남에서였다. 소탈한 외모와 동네 아저씨 같은 푸근한 인상에 그에 대한 신화적 아우라(aura)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그러나 그가 내뿜는 한 마디 한 마디 말들이 허공을 울리고 내려앉을 때마다 정적이 흘렀다. 대중 한명 한명에게 건네는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은 작품에 대한 작가로서의 진정성, 예술 정신의 깊이를 느끼게 했고, 시대를 읽는 안목이 무척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그리고 언제 기회가 되면 그의 전시를 꼭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하였다.

올해 초, (재)달서문화재단에 입사하여 인수인계를 받을 때쯤 그가 생각났다. 어쩌면 연간 전시 계획이 다 잡혔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9월 특별기획전으로 그의 전시를 제안했다. 걱정과 달리 그는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재단 소식지 '문화만개'에 실릴 기사를 요청할 즈음, 예상대로 그는 파리 IESA대학에서 초대전 '다시 태어나는 빛-뿌리들의 일어섬'전을 전시하며 무척 바쁘게 지내고 있었다. 파리 전시는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자유·독립·평화를 갈망한 시민혁명인 프랑스혁명을 기념하여 기획된 것이었다. 그는 이 전시에서 미디어아트를 통해 한국의 정서와 가치를 표현하며, 한국 민중의 정체성을 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해 독특한 세계로 서술하고 있었다.



모나리자 폐허, 2013 LED TV 5min 40sec

작가의 지나간 발자취를 살펴보면, 그는 전남 광주 조선대에서 대학원까지 조소를 전공하고 선배의 소개로 순천대 만화영상학과에서 강의를 하며, 영상매체를 처음 접하면서 '클레이 애니메이션(clay animation)'을 만나게 되었다. 이후, 연세대 영상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본격적으로 많은 영상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영상매체를 이용한 미디어 아티스트가 되었다.

따라서, 그의 예술가로서 끊임없고 자유로운 상상력은 조소에서 미디어의 자유로운 창작과 고전에서 명화로 캔버스에서 캔버스로 나비가 날아다니는 가상을 구현하는 원동력이 된다.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활동영역과 적극적인 사고의 실험정신은 오늘날 그가 글로벌 문화 메신저로서, 특히 동양과 서양의 크로스 오버되는 문화를 전달함에 틀림없다.

이러한 시점의 (재)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의 9월 특별전-이이남 전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이며 더 많은 관람자들에게 예술적 감동을 전달하며,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장이 될 것이다.

Highlight _이슈

‘가족과 함께하는 또 다른 내 집’ 달서가족문화센터개관 1주년 맞아

글 · 사진

박영빈(달서가족문화센터 운영지원팀장)

달서가족문화센터는 2018년 4월 12일 개관한 이래로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쉼 없이 달려왔다. 문화만개 제9호를 통하여 지난 1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 충전소이자, 개성과 인정 넘치는 희망 발전소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개관 1주년을 기념하다

2019년 4월 12일, 거창하고 화려한 세리모니는 없었다. 특별한 손님의 의미 있는 방문이 있었다. 이 날 달서가족문화센터 4층 소공연장에서는 HD행복연구소장 최성애 · 조벽 박사 부부가 무대에 올랐다. 가족 심리학계의 최고 권위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들 부부는 ‘가족의 행복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서울에서 대구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주었고, 자녀와 부부심리에 대하여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분석을 내놓았다. 전날인 11일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가족 콘서트가 열

렸다. 이음하여 ‘해피 패밀리’, 피아노(최훈락), 아코디언(홍기쁨), 드럼(정호민), 베이스 기타(박경동)가 멋진 연주를 선보였다. 특히 이날 공연에는 홍기쁨 씨의 아버지 홍세영 교수(대구예술대 실용음악과)가 깜짝 게스트로 등장해 듀엣 연주를 선사함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더해주었다. 지역민들의 관심 속에 치러진 개관 1주년 기념 행사는 소공연장 135석 사전 신청 마감률 기록하였으며, ‘행복’을 주제로 ‘가족’들이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달서가족문화센터는 지난해 4월 개관을 기념하며 2회 특강과 1회 공연을 시작으로 5월 한 달 동안 20개의 강좌를 시범 운영하였다. 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하는 또 다른 내 집’이라는 슬로건을 통하여 가족문화센터의 정체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친근하고 편안한 센터 역할을 담당하고자 노력해왔다. 계절별 학기제를 도입하여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1월) 학기를 거치면서 20에서 60, 그리고 120개까지 강좌를 증설하였고, 작년 한 해 5천 명이 넘는 인원이 수강하였다.

문화 강좌는 센터 내 전문 실기실인 쿠강실, 흡소잉실, 무용실, 컴퓨터실을 적극 활용하는 차원에서 ‘실용특화’부문으로 나누고, 구민의 수요를 반영한 ‘일반취미’강좌로서 수필·음악·미술·플라워·사진 등의 분야를 개설하였다. 이 외에도 30~40대 인구 밀집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어린이’ 및 ‘영·유아’대상 강좌를 확대 개설하였다.

가족 친화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 5월에는 쿠키와 코딩 강좌를 개설하고, 여름과 가을 학기에는 드론, 요가 등의 실기 수업을 이어갔다. 특히, 가족친화·결혼테마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하였다. ‘부부애 토크’, ‘아하 그랬구나’, ‘1318 사춘기 놀이터’, ‘미팅For웨딩’, ‘알콩달콩 결혼일기’, ‘사랑은 표현하는 거야’ 등 유형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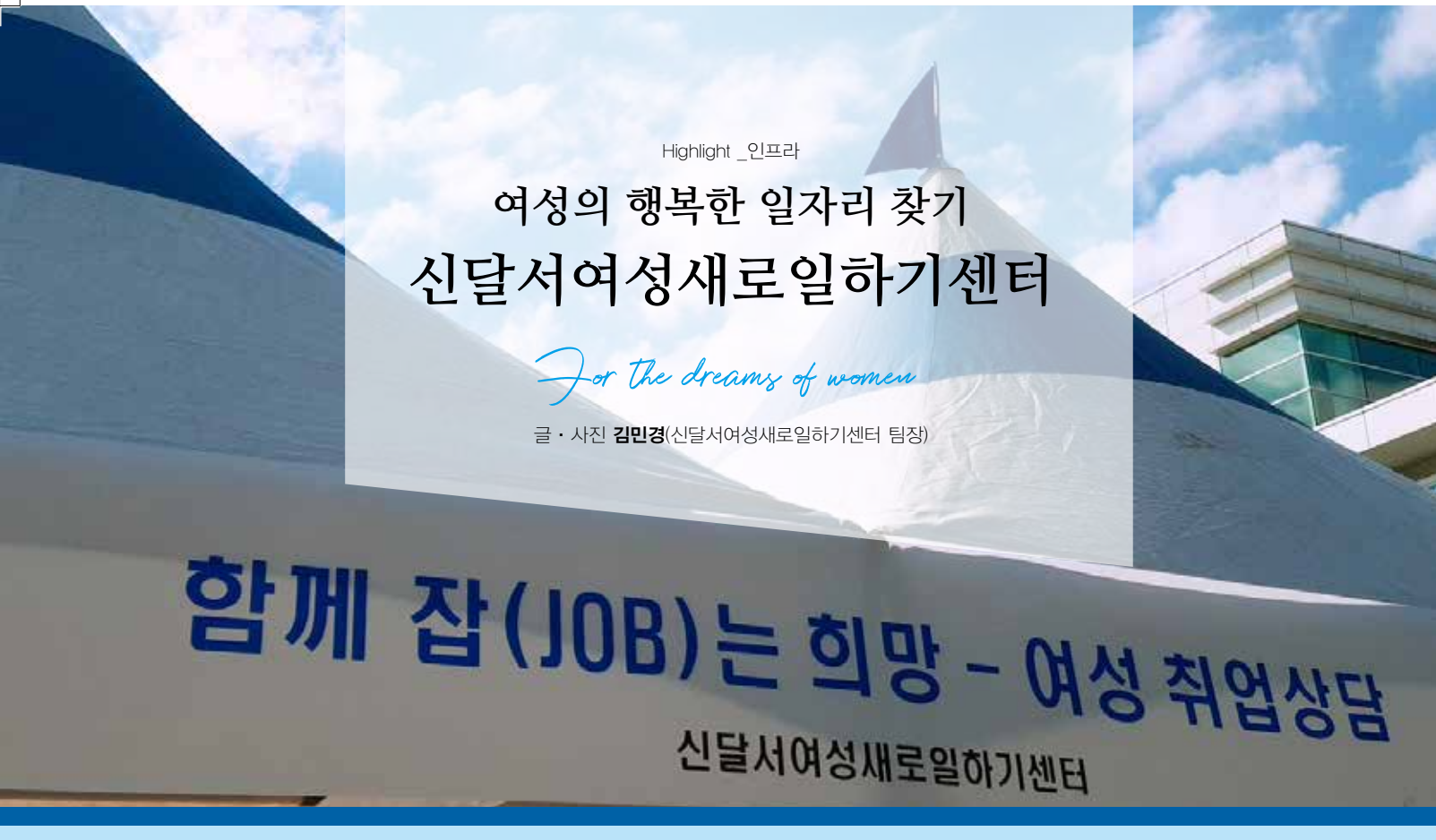
가족, 누구나를 위한 희망 공간으로

올해는 4학기 정규 강좌가 모두 운영되는 원년으로 점진적 안착과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12주 과정 주1회 수업을 기본으로 여름학기를 운영 중이며, 정규 강좌 외에도 학기별로 1회 특강과 3회 공연의 ‘특별기획’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원 콘서트’와 ‘브런치 콘서트’, ‘맘마 콘서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가족아카데미: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가족 심리 테스트’, ‘로맨틱 콘서트’, ‘러브 시네마’, ‘가족애 토크’, ‘가족 고민 상담소’ 등의 세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8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씩 ‘시네마 가족 테라피’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되고자 참여 대상의 범위를 넓힌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문화노리터: 가가호호(家家好)’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여름(6.~8월)과 가을(9.~11월) 학기에 진행한다. 중·장년층 대상 ‘희망노리터’, 2030세대 대상 ‘청춘노리터’, 3040세대 이상 ‘가족노리터’로 구분하여 1일 예술 분야 체험 강좌를 기본으로 인문학·음악·미술·체육 등 전 장르를 종합한 단기 과정, 가족 단위 관람 공연, 가족 합창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한다.

앞으로도 달서가족문화센터는 문화 향유 계층의 범위를 넓히고 구민과의 소통을 실현함으로써 더욱 활기 있는 생활 문화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희망 잡(Job)고 자신감 UP

새일센터 활성화와 참여 확대를 위해 2019년 신달서새일센터는 운영위원회 구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직업교육 훈련과 경력단절예방 집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조리·급식 실무, 회계·세무정보처리 2개 직업교육훈련 운영과 시니어 및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전 연령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 Job 토크콘서트

지역 취업지원 기관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종사자간 소통의 장을 마련, JOB토크콘서트를 통해 구직자에 맞는 효과적인 취업 설계와 취업 마인드를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달서구청·서부고용센터와 협업 '달서구 여성·청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여성 특화 박람회를 통한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새일센터 사업홍보 및 구직자 발굴을 위한 '달서가족축제' 찾아가는 구직상담 진행과 기업체 소규모 현장면접, 취업·교육 정보 제공, 노무·미술 상담, 부대행사 등 '굿잡(Good Job)버스'를 연 4회 진행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에는 취·창업 동아리 및 기업체 특강, 의사소통 교육 등을 통해 취업연계·관리지원 서비스를 진행하여 여성고용 유지 증대 및 여성 친화 문화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신달서새일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성들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들의 경력단절 극복으로 자신감 있는 멋진 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자리로 리턴, 내 꿈도 리셋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신달서새일센터)는 2018년 4월 문을 열었다. 변화와 새로운 출발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및 구직 여성들을 위해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 실속 있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만족도 높은 여성취업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직업교육 훈련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함께 잡(Job)는 변화의 기회

달서구 월배 신도시, 가족과 이웃의 소통공간인 달서가족문화센터 3층에 들어선 신달서새일센터는 2018년 4월 개소 이후 전문 직무교육 및 취·창업 동아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결혼·임신과 출산, 가족 돌봄 등 경력 공백 여성들을 위한 역량 강화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취업 상담, 인턴십, 지역의 10여 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교육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내 취업을 활성화하고 취업자 간담회 및 양성평등·직장문화개선 교육 등을 지원하여 구직자의 성공적인 직장 적응과 기업의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 거리버스킹

문의 [달서구청 문화체육관광과\(053-667-2174\)](tel:053-667-2174)

아무리 좋은 공연이 있어도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안 맞으면 볼 수가 없다. 바쁜 일상에 쫓겨 콘서트는 언급생심. 마음만 가득했던 분들을 위해 올해도 지역 곳곳을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 거리버스킹' 공연을 준비했다. '찾아가는 문화콘서트'는 권역별로 성당·두류, 성서, 월배 지역의 전통시장과 문화 유적지 등에서 '폭염을 이기자', '일상탈출' 등과 같이 계절과 지역에 맞는 테마로 공연이 펼쳐진다. '거리버스킹'은 지난 4월, 공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희망달서 거리버스킹단' 15개 팀이 6월부터 10월까지 첫째, 셋째 주 금요일과 토요일, 달서구의 여러 장소에서 연주와 춤, 노래, 마술 등 멋진 공연을 펼친다.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예술가들도 만나보고 흥겨운 시간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 '2019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 거리버스킹'으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자.



Category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일정·장소

ENJOY NOW ▾

7월 27일(토)	강창공원	19:00~20:30
8월 10일(토)	용산역 광장(8.15 기념)	19:00~20:30
	대곡근린공원	19:00~20:30
9월 3일(화)	송현주공시장	16:00~17:30
10월 19일(토)	두류정수장	19:00~20:30

※상기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Category 희망달서 거리버스킹 일정·장소

ENJOY NOW ▾

월광수변공원	6월~10월(매주 토요일)	18:00~19:30
두류정수장 입구	6월~10월(매주 토요일)	17:00~18:30
레드블록(계명대 앞)	6월~10월(1,3주 금요일)	17:00~18:30
두류 젊음의 거리	6월~10월(1,3주 토요일)	19:00~20:30
용산역 광장	6월~10월(1,3주 토요일)	19:00~20:30
마을마당 입구	6월~10월(1,3주 토요일)	18:00~19:30
상인역	6월~10월(1,3주 토요일)	17:00~18:30
죽전역	6월~10월(1,3주 토요일)	17:00~18:30

※상기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달서문화재단
달서가족문화센터



여름의 디저트

2019 달서가족문화센터 여름학기

브런치 콘서트

2019. 8. 27(화) 11:00
달서가족문화센터 4층 소공연장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레퍼토리로
힐링의 시간

팝페라

참가비 5,000원(간단한 다과 제공)
정 원 135명(공연 30분전 입장-자유석)
신 청 053.632.3800~1

2019
달서가족문화센터

문화노리터

가 가 호 호

8. 22 | 19:30

가족노리터 '허니 패밀리' 뮤지컬 갈라

장소 달서가족문화센터 4층 소공연장 참가비 무료
사전신청 053)632.3800~1

달서문화재단
달서가족문화센터
www.dscf.or.kr

2019 주민참여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드로잉 프로젝트 <동네여행>

일상 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를 자유분방한 드로잉으로 풀어내는
나만의 창작 여행! 감성을 자극하는 드로잉 프로젝트

- 기간: 2019. 7. 29~10.28(매주 월요일 10:00~12:00/총16회)
- 장소: 웃는얼굴아트센터 5강의실 및 달서구일대(드로잉소풍)
- 정원: 30명 (선착순) | 모집기간: 2019. 7. 3(수)~ 7.24(수) 18:00까지 접수
- 참가대상: 미술, 드로잉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타악연주 <두드림(DO DREAM) 달서클럽>

다양한 타악기를 활용, 여러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타악기 예술교육프로그램

- 기간: 2019. 7. 27~10.26(매주 토요일 10:00~12:00/총14회)
- 장소: 웃는얼굴아트센터 지하 2,3 강의실
- 참가대상: 타악기에 관심있는 지역주민(초등생 이상)
- 모집기간: 2019. 7. 3(수)~ 7. 24(수) 18:00까지 접수



청춘수필집 <브라보 마이 라이프>

지나간 과거의 추억, 현재의 소중한 기억...
나만의 이야기들을 모아 인생을 담은 청춘수필집을 발간하는
글쓰기 프로그램

- 기간: 2019. 9. 3~11.26(매주 화요일 10:00~12:00/총13회)
- 장소: 웃는얼굴아트센터 생활문화센터 동아리방
- 정원: 25명 (선착순) | 모집기간: 2019. 7. 29(월)~ 8.28(수) 18:00까지 접수
- 참가대상: 글쓰기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 참가비: 무료 ※일부 개인재료비는 부담할수 있음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dscf.or.kr)에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 E-mail: khjin1015@naver.com
방문: 대구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 웃는얼굴아트센터 문화정책실(별관2층)
- 문의: 053-584-9712(문화정책실)

KakaoTalk

TALK 웃는얼굴아트센터

웃는얼굴아트센터와 친구가 되시면
다양한 공연정보와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친구추가는 이렇게 하세요!



홈페이지 www.dscf.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dalseoculture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miling_arts_center

